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정책 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 PLS-SEM 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

2022 년 02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전공

김 나 현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정책 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 PLS-SEM 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

지도 교수 박 인 권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0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전공

김 나 현

김나현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12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주거지 분리를 완화하고, 도시 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아파트단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사유지인만큼 입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정책과 관련된 입주민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지지도와 그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 리터러시와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 편익 및 비용인식,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교환이론, 전망이론, 규범활성화모형, 이성적 행동이론 등 관련 이론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을 위해 PLS-SEM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Stata16 과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모집된 356 부 중 유효부수 308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특성상 개인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편익인식과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매개로 정책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목표 달성에 정책이 도움이 됨을 입주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정책지지를 높이는 데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책지지에 편익인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용인식은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높게 평가할수록 정책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모두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주민이 단지개방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 생각할수록 정책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지개방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식은 정책지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다중집단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단단지의 입주민과 비차단단지의 입주민을 비교한 결과, 아파트단지 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정도는 비차단단지 입주민이 더 높았고, 단지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은 차단단지 입주민이었다. 또 지역의 특성보다는 입주민이 동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네를 동질적으로 생각하는 입주민이 그렇지 않은 입주민보다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더 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민이 목표 달성에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를 홍보하여 입주민의 편익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등의 편익을 입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지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민감한 차단단지의 입주민에게는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지개방 정책지지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연구모형에 추가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책지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리터러시와 결과지각, 규범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정책 리터러시, 도덕적 및 주관적 규범, 편익 및 비용인식, 공동체의식,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학 번 : 2020-2371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 1 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9

제 2 절 정책지지와 참여 1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6

제 3 장 자료와 방법 33

제 1 절 개념적 틀 33

제 2 절 연구대상지 35

제 3 절 설문조사 설계 40

제 4 절 가설 및 연구모형 45

제 5 절 분석방법 48

제 4 장 단지개방정책 지지도 실증 분석 54

제 1 절 자료 사전분석 54

제 2 절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PLS-SEM) 77

제 3 절 집단 간 차이 분석 86

제 4 절 소결 101

제 5 장 결론 104

제 1 절 결론 및 시사점 104

제 2 절 의의 및 한계 107

참고 문헌 108

부록(설문문항) 117

ABSTRACT 122

표 목차

[표 3-1] 개념 정의 34
[표 3-2] 연구대상지의 심슨 다양성 지수의 역수 38
[표 3-3] 대상 아파트단지 개요 38
[표 3-4] 아파트단지 유형 분류 39
[표 3-5] 잠재변수 별 측정변수 구성 44
[표 3-6] 반영지표모형 평가 기준 51
[표 3-7] PLS-SEM 측정동일성 단계(MICOM) 53
[표 4-1] 자료 수집 결과 54
[표 4-2] 설문 참여자 특성 58
[표 4-3] 문항별 기초통계 62
[표 4-4] 희망 인센티브 순위 64
[표 4-5]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순위 64
[표 4-6] 분석모형 1 외부모형 평가: 신뢰도 67
[표 4-7] 분석모형 1 외부모형 평가: 집중타당도 68
[표 4-8] 분석모형 1 외부모형 평가: 판별타당도(HTMT) 69
[표 4-9]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다중공선성 70
[표 4-10]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설명력 및 예측적 적합성 70
[표 4-11]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효과크기 71
[표 4-12]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신뢰도 72
[표 4-13]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집중타당도 73
[표 4-14]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판별타당도(HTMT) 74
[표 4-15]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다중공선성 74
[표 4-16]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설명력 및 예측적 적합성 75
[표 4-17]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효과크기 76
[표 4-18]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결과 76
[표 4-19] 분석모형 1 의 PLS-SEM 분석 결과 78
[표 4-20] 분석모형 1 의 정책지지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80
[표 4-21] 분석모형 1 의 주요 경로의 간접효과 80
[표 4-22] 분석모형 2 의 PLS-SEM 분석 결과 82
[표 4-23] 분석모형 2 의 정책지지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84

[표 4-24] 분석모형 2 의 주요 경로의 간접효과 84
[표 4-25] 분석모형 선정 기준: BIC 값 비교..... 85
[표 4-26] PLS-SEM 측정동일성 1 단계 형태적 동일성 분석 결과..... 87
[표 4-27] PLS-SEM 측정동일성 2 단계 구성동일성 분석 결과 88
[표 4-28] PLS-SEM 측정동일성 3 단계 평균 균등성 분석 결과..... 89
[표 4-29] PLS-SEM 측정동일성 3 단계 분산 균등성 분석 결과..... 90
[표 4-30] PLS-SEM 측정동일성 충족 여부..... 91
[표 4-31] 차단단지 입주민과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92
[표 4-32] 차단단지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3
[표 4-33]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3
[표 4-34] 분류 1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차단단지-비차단단지) 94
[표 4-35] 비동질지역 입주민과 동질지역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95
[표 4-36] 비동질지역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6
[표 4-37] 동질지역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6
[표 4-38] 분류 2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비동질지역-동질지역) 97
[표 4-39] 비동질인식 입주민과 동질인식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98
[표 4-40] 비동질인식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9
[표 4-41] 동질인식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9
[표 4-42] 분류 3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비동질인식-동질인식) 100
[표 4-43] 가설채택 여부 10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8
[그림 3-1] 기준모형의 개념적 틀 33
[그림 3-2] 경쟁모형의 개념적 틀 33
[그림 3-3] 서울특별시 행정동 다양성의 공간 분포 36
[그림 3-4] 연구모형 1(기준모형) 46
[그림 3-5] 연구모형 2(경쟁모형) 47
[그림 4-1]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최소 표본수 55
[그림 4-2] 분석모형 1(기준모형) 66
[그림 4-3] 분석모형 2(경쟁모형) 66
[그림 4-4] 분석모형 1 추정 결과 77
[그림 4-5]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81
[그림 4-6] 다중집단분석모형 8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층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은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는 비건폐지로, 놀이와 휴식·운동·이웃 간 교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이러한 단지 내 외부공간은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여 거주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아·전진형, 2008, Nasar, 1998 재인용). 이러한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은 클럽경제로 구축된 공용공간이지만(김희석·이영성, 2020),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반면,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세우거나 단지 경계에 차단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는 아파트단지도 있다.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아파트단지 입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걷기 운동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도시민은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을 도시녹지로 체감하기도 한다(김예성 외, 2014; 이형숙 외, 2011).

외부인 출입통제는 방범이나 치안, 주차, 잡상인 관리 등의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고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김지은·최막중, 2012).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단지 차단문의 설치는 입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 반면, 근린의 사회적 응집력은 낮춰 공간적·사회적 분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석·이영성, 2020). 도시 내 거주지 분리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 내 주민 간 단절, 집단 간

편견 조장,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 사회통합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양승호, 2014; 이상록, 2012) .

아파트단지의 출입통제를 둘러싼 갈등도 많다. 단지차단문을 설치한 아파트단지 인근 거주민은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출입을 막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인이 반려견을 산책 시키면서 용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거나,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이 일어나 입주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둘러싼 지역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기에 공동체 와해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도시 내 거주지 분리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지역 공동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아파트단지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017 년에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 조의 2 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①]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 67 조의 2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가능 시간대 등을 결정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5조 1항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계획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있다.

사업자는 지역친화공간 조성을 통해 전용면적 증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택단지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단지 경계의 차단문 설치를 억제하고, 열려 있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는 반대로 입주민들이 차단문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내향성과 폐쇄성이 주민 주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석·이영성, 2020). 이러한 충돌은 현 정책에 입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행동에 선행하며, 태도는 행동의도에 선행한다(김수인·신택수, 2016).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의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참여의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정책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동주택 정책의 특성 중 하나는 실거주자 보다 사업시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령은 건설 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입주민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을 모르면 정책지지(수용)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지지와 관련된 요인들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단지개방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 정책지지도의 영향요인 간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여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지 알아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지개방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서울특별시는 2010 년대부터 도시정책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람·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그에 맞춘 도시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이경영 외, 2018). 일례로 서초구청은 신반포 1 차 재건축 당시 주민공동시설의 외부개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한 바 있다. 또한 일정한 지역의 관할구역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을 지역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행정단위인 읍·면·동이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읍·면·동의 인구가 3000~20000 명인 것을 고려하여, 공동체의식의 측정 단위로 '근린'인 지역공동체를 읍·면·동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서재호,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은 시대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외부공간의 질은 높아졌다. 특히 브랜드아파트시대[②] 이후로 단지 내 외부공간이 아파트단지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단지 내 외부공간이 보행친화공간으로 진화하였다.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지상주차장이 지하화되면서 지상 외부공간 중 보행공간의 면적이 넓어졌으며, 그 공간에 조성되는 조경, 산책로, 시설 등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었다(김대현 외, 2005; 신경준, 2010). 또한 2000 년대 이후에 준공된 단지는 초소, 바리게이트, 개별인식시스템, CCTV 비율이 95% 이상으로 일반화되었다(김지은·최막중, 2012).

---

② 신경준(2010)은 1999 년 이후 건설사의 브랜드를 앞세워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기에, 그 시기를 브랜드아파트시대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라 칭한다. 본래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단지 내 외부공간을 비롯하여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실내공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 중 실내시설은 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규모나 종류 등이 계획[3]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클럽재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된 외부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00 년대 이후 조성된 공원형 아파트단지[4]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으로 제한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이란 입주민의 교통용지인 도로나 주차장을 제외한 녹지와 놀이터, 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있는 외부공간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지역주민은 해당 아파트단지 인근 1 차 생활권[5]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외 주민을 의미한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 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따르면, 100 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2.5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2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공원형 아파트단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 없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 외부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한 아파트단지를 공원형 아파트단지라 한다.

[5] 1 차 생활권이란, 소생활권 혹은 근린생활권이라고도 하는 권역으로, 일반적으로 도보로 이동가능한 범위이다. 동사무소나 초등학교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범위로 설정된다(오병록, 2012).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지지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공간이 개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찰한다. 둘째, 정책지지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지지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개방 정책지지의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넷째,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설계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다섯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요인간 구조적 관계와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 단지개방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 정책지지와 참여
연구 방법 설정
· 개념적 틀
· 연구대상지 선정
·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 분석 방법론
분석자료 구축
· 변수설정
· 설문조사 설계
· 데이터 구축(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및 해석
· 기술통계
· PLS-SEM 분석
· 다중집단 분석
결론 및 제언
· 정책지지 영향요인 간 관계 분석
· 단지개방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1. 주민공동시설

「주택법」 제 2 조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한다. 복리시설 중 일부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이라고 칭한다.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등이 있다. 또한 같은 영 제 55 조의 2 에 따르면 100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중 150 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300 세대 이상에서는 어린이집을 추가로, 500 세대 이상에서는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대한주택공사가 주택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설계지침에 기초하여 1979 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례는 주민공동시설을 아파트단지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Yang & Kim, 2021).

이렇게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조성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조성된 클럽재라고 볼 수 있다. 클럽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 입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집단으로, 클럽재를 함께 이용함에 따른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 클럽재는 클럽회원들의 비용분담을 통해 생산되며, 이때 클럽재는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혼잡비용이 증가하여 클럽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양희진, 2017). 따라서 입주민이 아파트단지 내 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클럽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매우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2. 폐쇄 공동체의 특성

한국 아파트는 단지화 전략을 통해 건설되어 폐쇄 공동체(Gated Community)의 일환이 되었다. 폐쇄 공동체는 차단문과 벽, 울타리 등의 방어물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과 경계짓는 근린형태이다. 기원전 로마군의 주둔지로부터 기원되며, 19 세기 후반에 순수하게 주거를 위한 폐쇄 공동체가 처음 개발되었다. 주거 폐쇄 공동체는 위험과 원하지 않는 마주침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또 1960 년대에는 서구 도시의 교외화 현상을 막고,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Atkinson & Flint, 2004; Yang et al., 2021, Blakely & Snyder, 1997 재인용). 한국의 아파트 단지화 전략은 도시 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공공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아파트단지가 대형화되면서 주택이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었으며, 부족한 시설을 아파트단지에 접목함으로써 중산층을 위한 쾌적한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었다(Yang & Kim, 2021; 박인석, 2013: 26~35; 양희진, 2017).

폐쇄공동체는 내부 주민들에게 보안, 사생활 보장, 서비스 제공, 장소 애착, 안전 등의 측면에서 명확한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시 사회적 측면에서는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증가시킨다. 또한 더 많은 공공공간이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될수록 다른 계층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고, 공간 공급이 줄어든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며,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추가적으로 폐쇄 공동체는 그 경계를 우회하게 만들어 도시 내 교통과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즉 폐쇄

공동체는 내부 주민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신 도시의 개방성, 투명성, 접근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폐쇄 공동체를 개방하면 도시 내 투과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연료, 대기 오염, 소음 공해 비용이 절약되며, 지역의 상업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른 아파트단지를 통과하여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로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Yang et al., 2021). 또한 보행환경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이 느끼는 보행환경 질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데(고은정 외, 2006; 이경환, 2009), 이는 물리적 환경이 공동체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면 지역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에 보행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공동주택 관련 인센티브

정책수용이란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과 국민 사이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다(김재근·권기헌, 2007). 정부에서는 정책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도심 및 주거정비사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인 기부채납방식은 도시 내 공공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장재영, 2007).

공동주택과 관련된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제한 완화, 분양가 가산, 전용면적 증가 등이 있다. 「주택법」 제 20 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건설할 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에 의하면,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 조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 8 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 85 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 11 조에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크게 규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적 인센티브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상적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주체의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대개 특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포상적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포상적 인센티브가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수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장재영, 2007).

아파트단지 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도시 내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이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받는 인센티브는 포상적 인센티브이다.

제 2 절 정책지지와 참여

1. 정책지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공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된다. 이는 19 세기 말 이후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정책을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수단적 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한편,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의 양상이나 결과가 달라진다. 배분정책 분야에서 정치인들은 가급적 다수의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규제정책을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특별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훨씬 강하고 지속적이다. 재분배 정책의 수혜집단은 대부분 저소득층, 실업자 등으로 정책이 도입될 때 수혜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역할이 주도적이다 (사공영호, 2008).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지지는 정책에 대해 호의적 또는 긍정적으로 개인이 지향하는 태도나 행동으로, 정책 선호, 태도, 수용, 순응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강형미·이유나, 2018; 박정훈, 2008). 정책지지는 개인의 성향 및 이해관계, 정부신뢰, 정책 PR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강형미·이유나, 2018; 고혜영·김주경,

2020; 금현섭·백승주, 2010; 김재휘·박유진, 2002; 김현준·이일용, 2013; 박정훈, 2008; 오경수 외, 2013; 이동기, 2021; 이연택 외, 2019; 이연택·김형준, 2014; 전영상, 2011; 정광호, 2008; 주현정·이연택, 2015).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정책지지는 공중이 지닌 정책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강형미·이유나, 2018; 이동기, 2021; 이수범·김남이, 2013; 이연택 외, 2019; 이연택·김형준, 2014).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을 높여야 하고, 인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적절성, 목적 부합성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시철, 2005). 따라서 어떤 정책의 지지도 영향요인을 살펴볼 때는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리터러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지지에 있어 개인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 혹은 집단이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는 개인이 편익과 비용을 따져 편익이 더 큰 정책은 지지하고, 비용이 더 큰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회교환이론이나 전망이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생애초기에 형성되어 성인기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성향이 새롭게 마주하게 된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는 정책에 대한 성향, 즉 규범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를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태도로 정의한다. 또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리터러시와 편익 및 비용, 그리고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본래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였지만, 분야별 적응 및 응용능력으로 그 뜻이 확대되었다(고혜영·김주경, 2020;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는 좁게는 정책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넓게는 정책과정과 내용이 이해관계에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책 리터러시에는 정책에 대한 인지 차원을 넘어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복지를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행위적 역량도 포함된다(이영안 외, 2019; 정광호, 2008). 이러한 정책 리터러시는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전통적 리터러시는 정책지식 및 정보의 인지 및 이해수준, 기능적 리터러시는 그 지식 및 정보의 활용력,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뜻한다(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정책토론에 참여하고 정책숙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책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책 리터러시가 결핍되면 정책용어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은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정책이나 토지정책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정책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수많은 행정착오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책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정책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정책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는 시민은 정책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불신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책에 무지한 경우 정책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리터러시의 격차는 정책 참여와 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정책 PR 이라고 하는데, 국정 의제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이다(강형미·이유나, 2018; 고혜영·김주경, 2020; 이수범·김남이, 2013; 정광호, 2008; 최연태·박상인, 2011).

이러한 정책 리터러시는 시민활동, 정치환경, 큰 사건,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부신뢰, 혜택, 우려, 규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혜영·김주경, 2020;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0; 이동기, 2021).

본 연구에서의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이하 전통적 리터러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이하 비판적 리터러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내용에 대한 통찰력으로 정의한다.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개개인이 직접 행하기 어렵기에 기능적 정책 리터러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 편익 및 비용 인식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실은 정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매우 민감한 대상 집단을 갖고 있기에(금현섭·백승주, 2010),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과 비용인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상호 교류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으로, 주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 이용되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개인 또는 그룹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것을 지지할지 아니면 지지하지 않을지 결정한다(Ap, 1992). 이 이론은 불평등한 교환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편익의 차이로 정의내릴 수 있는 지각된 가치는 이득과 희생의 거래관계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긍정적인 반응을,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때 편익과 비용은 개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지지에 유무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한 지지의사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 기대할 수 있지만 편익과 지지의사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Cook et al., 2013; Jackson, 2008; Song et al., 2015; 김재학·김성조, 2018; 신창열 외, 2012; 오정학·윤유식, 2009).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이다. 전망이론에서는 가치함수(value function)와 가중치함수(weighting function)를 이용하여 선택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현재 상태인 준거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사람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 중에서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Kahneman & Tversky, 1979). 그러나 정책수용모형은 정책지지에 이익의 영향력이 더 큰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정책수용모형에 의하면, 인지된 정책혜택과 인지된 정책우려는 정책지지에 각각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된 정책혜택의 영향력이 더 크다(박정훈·신정희, 2010).

본 연구에서는 편익인식을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으로, 비용인식을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정책수용모형에서의 인지된 정책혜택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인지된 유용성으로, 본 연구에서의 편익인식과 같은 개념이다. 인지된 정책우려는 인지된 정책혜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의 비용인식과 같은 개념이다.

4. 개인적 규범 및 사회적 규범

가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는 일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다. 친사회적 행위는 개인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성적 행동이론(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은 개인의 행동 지향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장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때 태도는 행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이며,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그 행동을 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다. 즉 주관적 규범은 행동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이다(Norman, 2011; Park & Ha, 2014; 김수인·신택수, 2016; 노기영 외, 2013; 박정훈, 2008; 최병구, 2018). 이러한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론은 정책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정훈·신정희, 2010). 주관적 규범은 서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과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s)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규범은 사람들이 대개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령적 규범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기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Cialdini et al., 1990).

이성적 행동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한 이론이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받는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지 혹은 어려운지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Ajzen, 1985, 1991). 이 이론은 Ajzen (1985)이 제시한 이후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는데,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인인 도덕적 규범까지 통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론이 확장되고 있다(구윤희 외, 2020).

규범활성화모형은 도덕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무연 휘발유의 구매, 에너지 보존, 재활용,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의사 등의 친사회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폭 넓게 이용되었다. 규범활성화모형은 도덕적(개인적) 규범, 결과에 대한 지각, 책임 귀속 등 세 변수를 포함한다. 도덕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자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느끼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지각은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책임귀속은 그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감으로 설명된다(De Groot & Steg, 2009; Doran & Larsen, 2016).

규범활성화모형은 개인들이 도덕적 의무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행동을 통해 그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이타적인 수행을 한다고 가정한다. 결과지각과 책임귀속으로 인해 도덕적 규범이 활성화되면 친사회적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지각은 도덕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Park & Ha, 2014; 구윤희

외, 2020; 김봉철 외, 2012; 김종흠, 2015; 김종흠·박은아, 2015; 최병구, 2018).

도덕적 규범은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규범으로도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규범이라 칭하고,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한 개인의 내면적 감정으로 정의한다.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직관적 이해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칭하고,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한 주변 지인 및 사회적 바람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라 정의한다.

5.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주로 근린, 마을, 도시 등의 영역적(지리적) 개념과 위치와 인간 관계에 기반한 관계적 개념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지리적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발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흥미나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다. 이에 맞춰 공동체의식의 정의와 개념요소도 변화하는데, MacQueen et al. (2001)은 장소(locus)와 공유(sharing), 협력활동(joint action), 사회적 유대(social ties), 다양성(diversity)를 공동체의식의 개념요소로 제안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의 공동체 해체현상을 반영하여 공동체의식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은 해체된 사회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박가나, 2009).

공동체 의식은 크게 귀속감(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귀속감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소속감이며, 상호영향의식은 구성원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구성원의 욕구가 노력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충족된다는 느낌이며, 정서적인 연계는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이다(McMillan & Chavis, 1986).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동체의식이 약한 지역에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파편화되어 공동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주며, 친사회적 행동과 서로 상호작용한다(김대건, 2011; 김수인·신택수, 2016; 양덕순·강영순, 2008).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공동체 보통의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반적인 일과 관련된 결정에 힘을 행사하는 과정(Cunningham, 1972)'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아파트단지를 개방정책에 참여하는 행위는 단지 내 입주민 회의에서 입주민들의 참여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집합의지로 정의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아파트단지 개방 및 정책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대현 외, 2005; 김철수 외, 2007; 이재호, 2001; 이정아·전진형, 2008).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단지가 폐쇄적일수록 입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김지은·최막중 (2012)의 연구는 아파트단지의 폐쇄지수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평당 가격이 1.2% 정도 상승함과 폐쇄성이 높을수록 근린관계가 좋음을 밝혔다. 또한 Bint-e-Waheed & Nadeem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폐쇄공동체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개방된 곳보다 높았다. 김희석·이영성 (2020)은 주거의 질과 커뮤니티 소속감, 거버넌스 지표는 차단단지가 비단지 및 일반단지에 비해 높지만, 이웃과의 상호작용, 포용성은 더 낮음을 밝혔다.

아파트단지 개방과 관련된 연구는 주민인식조사와 접근성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다. 강성우 (2014, 2018)의 연구를 통해,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이 지역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단지 개방 필요성에는 도시공공성 및 공원녹지 증대는 정(+)의 영향을, 아파트단지 개방에 따른 악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쳤고, 소음발생, 보행동선혼재, 위생악화,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

사적공간감소, 유지보수비용, 방범대책 순으로 악영향에 영향을 미쳤다. Wu et al. (2021)의 연구는 폐쇄 공동체의 개방에 남성 입주자들은 단지 내 안전과 자산 관리 측면, 여성 입주자들은 사유재산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밝혔다.

한편, 접근성 측면에서 폐쇄공동체를 개방할수록 공간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gan et al. (2021)과 Yang et al. (2021)은 각각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중국 푸동, 양푸를 대상으로 폐쇄공동체가 완전히 개방될수록 보행 효율성이 높아짐을 밝혔다. 특히 Yang et al. (2021)의 연구는 공동체 내 보안과 주거환경 악화 등 단지를 통과하게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의 증가율은 모든 조건에서 아파트단지를 개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접근성 증가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정책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정책지지는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 혹은 정책을 수용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지지 관련 영향요인과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행동과 행동의도, 태도를 포함하는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정책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관광정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는데, 계획된 행동이론과 기술수용모형, 도덕활성화모형, 사회교환이론, 전망이론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정책지지의 영향요인으로 크게 정책 리터러시와 편익 및 비용인식, 규범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정책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 이해도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수범·김남이, 2013). Park & Lee (2015)와 오은비

외 (2016)의 연구는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데, 고혜영·김주경 (2020)은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정책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비판적 리터러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한편 선행연구마다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맞춰 살펴본 결과, Park & Ha (2014)와 구윤희 외 (2020)의 결과지각이 본 연구의 비판적 리터러시와 같은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규범 및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능력보다 정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규범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모두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과 관련된 연구로, 류동균 외 (2016)는 개인적 규범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비해 정책지지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De Groot & Steg (2009)와 구윤희 외 (2020)는 개인적 규범이 행위에 선행함을 밝혀 내었고, 서민정 (2019)은 사회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Park & Ha (2014)와 김수진·차희원 (2016), 김종흠·박은아 (2015)의 연구는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Doran & Larsen (2016)의 연구는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편익 및 비용인식으로 대표되는 결과지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혜택, 이익 등으로 대변되는 편익인식은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우려, 위험, 피해 등으로 대변되는 비용인식은 정책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학·김성조, 2018; 김재휘·박유진, 2002;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0; 서민정, 2019; 임다희 외, 2016).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졌는데, 김재학·김성조 (2018)와 박정훈·신정희 (2010), 임다희 외 (2016)의 연구에서는 편익인식과 비용인식 모두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김재휘·박유진 (2002)의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의 결과, 즉 비용인식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정훈 (2008)의 연구에서는 혜택(편익인식)이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프라이버시 우려(비용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규범과 편익 및 비용인식의 인과관계도 연구에 따라 달랐다. 전통적인 규범활성화모형을 토대로 한 연구(De Groot & Steg, 2009)에서는 결과지각이 규범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정훈 (2008)과 서민정 (2019)은 사회적 규범이 편익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김종흠·박은아 (2015)는 지각된 위험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개인적 규범이 선행함을 보여주었다.

정책과 관련된 공동체의식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양덕순·강영순 (2008), 최문형·정문기 (2015), 이영원 (2016), 한수정 외 (2019)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주민참여에 대한 의향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박가나 (2009)와 서재호 (2013)의 연구는 주민참여와 공동체의식의 인과관계를 반대로 연구하였는데,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참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공동체의식 제고에 도움이 됨을 뜻한다. 위 연구들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대건 (2011)의 연구는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지역의 협력적 갈등행태의 정도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공동체의식이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차별성

검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입주민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간정책의 지지를 대상으로 일반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특히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인식은 어떠한지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보지 못했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가 규범, 편익 및 비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공동체의식이 개방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다룬다. 아파트단지 개방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개방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방과 개방정책에 관련된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 여부이다. 개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경우, 개방을 조건으로 받는 인센티브의 영향여부는 측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에서 개방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한 인식과 입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보다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지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의 영향이 큰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추가 및 보완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의 영향요인 간 영향력 차이와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지지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책 리터러시는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출발선이기에 정책 리터러시가 다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정책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지지 또한 집단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또한 집단별로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3 장 자료와 방법

제 1 절 개념적 틀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 리터러시가 결과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지각이 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규범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 모형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0), 서민정 (2019)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이 결과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기준모형의 개념적 틀

[그림 3-2] 경쟁모형의 개념적 틀

규범활성화모형의 결과지각 및 개인적 규범, 사회교환이론의 편익 및 비용, 이성적 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 정책수용모형의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우려, 전망이론의 이익 및 비용, 정책리터러시의 전통적 리터러시 및 비판적 리터러시 개념을 재범주화 및 재조정한 후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지지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한다. 이는 정책지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긍정적이고, 낮을수록 부정적임을 뜻한다. 전통적 리터러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책인지로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전통적 리터러시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단지 개방 정책에 대해 그만큼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통찰력으로 정의한다. 비판적 리터러시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편익 및 비용인식은 각각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한다. 편익인식이 높다는 것은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비용인식이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규범은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한 개인의 내면적 감정이며, 사회적 규범은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해 주변 지인 및 사회적 바람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즉 개인적 규범은 아파트단지 개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 사회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집합의지로 정의한다.

[표 3-1] 개념 정의

잠재변수	정의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내용에 대한 통찰력
편익인식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
비용인식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
개인적 규범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한 개인의 내면적 감정
사회적 규범	아파트단지 개방에 관한 주변 지인 및 사회적 바람에 대한 개인의 의식
공동체의식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집합의지
정책지지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제 2 절 연구대상지

1. 심슨의 다양성 지수

연구대상지는 심슨의 다양성 지수(Simpson's Diversity Index)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심슨 다양성 지수는 어떤 집단에서 임의로 선택된 두 개체가 같은 유형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그러나 0 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비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다. 이때 심슨 지수의 역수를 이용하면 값이 커질수록 다양성이 높아져 직관적으로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은정·안건혁, 2014). 다시 말해 다양성이 높을수록 동질성은 낮아지고, 다양성이 낮을수록 동질성은 높아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동질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심슨 다양성 지수의 역수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frac{1}{D} = \frac{N(N-1)}{\sum_i n_i\,(n_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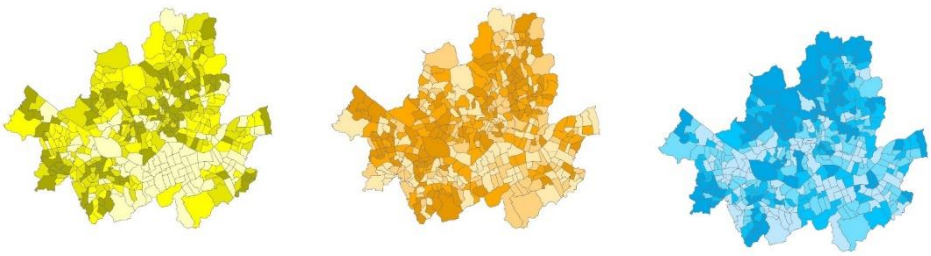
D: 심슨의 다양성 지수

N: 전체 집단에 포함된 개체 수

n_i: i번째 유형에 속하는 개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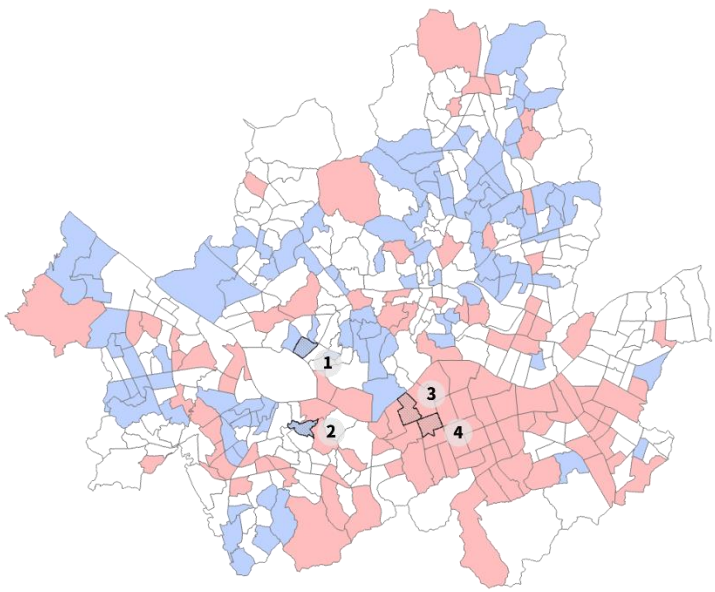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동질성, 경제적 동질성, 인구학적 동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내 행정동 단위로 지역 동질성을 산출하였다. 경제적 동질성은 소득수준을 대리지표로 선정하여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회적 동질성은 교육수준을 대리지표로, 인구학적 동질성은 연령을 대리지표로 선정하여 2015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특별시 내 행정동 각 지표의 평균값을 최종 지수로 이용하고, 최종 지수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동질성이 높은 지역(=다양성이 낮은 지역, 제 1 사분위수 이하)과 동질성이 낮은 지역(=다양성이 높은 지역, 제 3 사분위수 이상)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산출결과, 동질성이 높은 지역은 주로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 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동질성이 낮은 지역은 그 외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사회적 동질성(교육수준) 경제적 동질성(소득수준) 인구학적 동질성(연령수준)

색이 옅을수록 다양성이 낮고, 동질성이 높은 지역



종합 동질성

①용강동, ②상도 2 동, ③반포 3 동, ④반포 1 동

붉은색: 제 1 사분위 이하 지역, 푸른색: 제 3 사분위 이상 지역

[그림 3-3] 서울특별시 행정동 다양성의 공간 분포

2. 연구대상지 선정

심슨의 다양성 지수와 행정동 내 공원형 아파트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초구 반포 1 동과 반포 3 동, 동작구 상도 2 동, 마포구 용강동 내 아파트단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 선정 시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고려하였다. 공원화된 외부공간이 있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지하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브랜드아파트 시기인 2000 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외부공간이 공원처럼 조성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세대수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500 세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2020.12.31.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면적이 중위값의 50~200%인 아파트단지, 500 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 사용승인일이 2000 년 이후인 아파트단지, 공원형 아파트단지를 모두 만족하는 아파트단지 중 생활권을 공유하고, 동일 행정동 내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으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자료 내에 없는 수치나 건축물대장과 다른 수치는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정리하였다.

3. 연구대상지 특성

서초구 반포 1 동과 반포 3 동의 심슨 지수의 역수의 평균값은 각각 4.6017, 4.0890, 동작구 상도 2 동과 마포구 용강동의 심슨 지수의 역수의 평균값은 각각 5.1894, 5.2592 였다. 반포 1 동과 반포 3 동은 동질적인 지역, 상도 2 동과 용강동은 비동질적인 지역이다.

[표 3-2] 연구대상지의 심슨 다양성 지수의 역수

	사회 동질성	경제 동질성	인구 동질성	평균
서초구 반포 1 동	4.1361	3.0974	6.5717	4.6017
서초구 반포 3 동	3.4730	2.0870	6.7071	4.0890
동작구 상도 2 동	4.0588	4.7383	6.7711	5.1894
마포구 용강동	4.4260	4.5929	6.7587	5.2592

최종 선정된 아파트단지들은 인접해 있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로 주변 환경과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B1, B2, B3, B4, S2 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S1 은 지역주택사업으로, Y1, Y2 는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었다. 연구대상 아파트단지 모두 2010 년 이후 사용승인된 단지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여 산책로, 쉼터 등으로 꾸몄다.

[표 3-3] 대상 아파트단지 개요

단지명	소재지	사용승인연도	세대 수	대지면적
B1	서초구 반포 1 동	2018	분양 634 임대 130	27429.50m^2
B2	서초구 반포 1 동	2018	분양 713 임대 116	38583.70m^2
B3	서초구 반포 1 동	2010	분양 1076 임대 43	47661.20m^2
B4	서초구 반포 3 동	2018	분양 536 임대 71	23451.30m^2
S1	동작구 상도 2 동	2016	분양 422 임대 160	19376.20m^2
S2	동작구 상도 2 동	2018	분양 888 임대 5	39429.30m^2
Y1	마포구 용강동	2015	분양 454 임대 93	22587.40m^2
Y2	마포구 용강동	2015	분양 466 임대 97	24361.00m^2

김지은·최막중(2012)은 아파트단지 내 출입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물리적 시설물을 기준으로 폐쇄정도를 지수화하였다. 단지 출입 통제 유형(초소 및 바리게이트)과 세대 현관 출입 통제 유형(초소 및 자동인식시스템), CCTV 유무 등의 통제요소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을 폐쇄지수로 정의하였다. 김희석·이영성(2020)은 단지 내로의 진입통제 정도를 단지차단문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일반단지와 차단단지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차단문의 유무를 기준으로 차단단지와 비차단단지를 구분하였다.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상도 2 동 내 아파트단지(S1, S2)에는 모두 보행자 차단문이 없었지만, 용강동 내 아파트단지(Y1, Y1)에는 모두 보행자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다양성이 낮은 반포 1 동 내에서는 보행자 차단문이 있는 아파트단지(B3)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단지(B1, B2)가 혼재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질적인 지역의 차단단지로 B3, B4, 동질지역의 비차단단지로 B1, B2, 동질적이지 않은 지역의 차단단지는 Y1, Y2, 동질적이지 않은 지역의 비차단단지는 S1, S2 로 정리할 수 있었다.

[표 3-4] 아파트단지 유형 분류

	동질지역	비동질지역
차단단지	B3, B4	Y1, Y2
비차단단지	B1, B2	S1, S2

제 3 절 설문조사 설계

구조방정식모형은 회귀분석이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구성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우종필, 2012: 2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한 연속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 점 리커트척도(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다소 아니다, ④보통이다, ⑤다소 그렇다, ⑥그렇다, ⑦아주 그렇다)를 이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설계하였으며,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했다.

먼저 정책 리터러시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이해, 정책인지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통해 전통적 리터러시를 측정하였고, 삶의 질 향상, 생활수준 향상, 지역발전 등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을 통해 비판적 리터러시를 측정하였다(강형미·이유나, 2018; 고혜영·김주경, 2020; 오은비 외, 2016; 이동기, 2021; 이미홍·조영, 2008; 이연택·김형준, 2014; 정광호, 2008; 최연태·박상인, 2011). 본 연구에서 전통적 리터러시는 정책정보, 이해 등을 포괄하는 개념,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개념임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적 리터러시 문항 6 개, 비판적 리터러시 문항 4 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존재와 내용, 수단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내 아파트단지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비판적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및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내 공공성 확대,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발전, 삶의 질 향상에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도움을 주는지 묻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결과지각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다(구윤희 외, 2020).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비판적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개념을 결과지각으로 보기도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개방정책의 결과지각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잃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편익 및 비용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관광, 행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으로 인한 혜택 및 우려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편익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대가, 공동체의식 강화, 단지분위기 증진, 이동편리성 증대, 생활 SOC 증가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비용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침해, 유지보수비용 증가, 사생활 침해, 치안악화, 위생악화, 소음발생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개인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은 정책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더해 행동의도 및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규범을 의미하는 도덕적 규범으로 의무감, 죄의식, 책임감 등을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으로 주변 사람들이 해당 정책(혹은 행위)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등 해당 정책(혹은 행위)에 대해 자신이 받는 압력을 측정하였다(Doran & Larsen, 2016; Park & Ha, 2014; 구윤희 외, 2020; 김수인·신택수, 2016; 김수진·차희원, 2016; 김종흠, 2015; 김종흠·박은아, 2015; 노기영 외, 2013; 류동균 외, 2016; 박정훈, 2008; 서민정, 2019; 이정기·우형진, 2010; 차동필, 2005; 최병구, 201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인 개인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에 대한 의무감, 도덕성, 도리와 아파트단지를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죄책감을 묻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를 묻는 사회적 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개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아파트단지 개방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하는지, 그 정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지, 사회분위기 상 아파트단지를 개방해야 할 것 같은지 묻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공동체의식을 포함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은 전통적인 구성요소인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McMillan & Chavis, 1986; 박가나, 2009; 최문형·정문기, 2015; 한수정 외, 2019)를 바탕으로 연대의식, 친밀감, 정주성, 만족감, 영향력, 감정적 교류 등의 요소를 시대와 연구 내용에 맞추어 기존의 구성요소를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측정되었다(고은정 외, 2006; 김대건, 2011; 서재호, 2013; 양덕순·강영순, 2008; 이경환, 2009; 이라영·신남수, 2009; 이영원,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경계가 행정동이라는 것을 고려해 아파트단지 입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정서적 연계는 현대 사회의 특성 상 아파트단지 외부 입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의식, 영향의식, 연대감, 소속감 등을 묻는 4 개 문항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정책지지의 측정도구는 정책지지가 정책수용, 정책순응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개념의 선행연구로 확장하여 살펴본 뒤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책지지는 주로 정책에 동의하는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정책을 준수할 것인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강형미·이유나, 2018; 고혜영·김주경, 2020; 김수인·신택수, 2016; 김수진·차희원, 2016; 김수진·김영욱, 2019; 김재근·권기헌, 2007;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0; 손호중, 2007; 오은비 외, 2016; 이동기, 2021; 이연택·김형준, 2014; 임다희 외, 2016; 최병구, 2018).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필요성과 수단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정책지지 3 문항, 전통적 리터러시 6 문항, 비판적 리터러시 4 문항, 편익인식 6 문항, 비용인식 6 문항, 개인적 규범 4 문항, 사회적 규범 4 문항, 공동체의식 4 문항, 개인특성 6 문항 등 43 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5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참조).

[표 3-5] 잠재변수 별 측정변수 구성

잠재변수	측정변수
정책지지	필요성 동의
	수단 동의
	준수의향
전통적 리터러시	존재 인지
	내용 인지
	수단 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비판적 리터러시	도시 내 공공성 확대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편익인식	인센티브 편익
	관리비 지원
	공동체의식 강화
	단지분위기 증진
	이동편리성 증대
	생활 SOC 증가
비용인식	사유재산 침해
	유지보수비용 증가
	사생활 침해
	치안악화
	위생악화
	소음악화
개인적 규범	의무감
	죄의식
	도덕성
	도리
사회적 규범	주변의 의견
	주변의 기대
	주변의 바람
	사회적 압력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영향의식
	연대감
	소속감
개인특성	성별
	연령
	거주유형
	거주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제 4 절 가설 및 연구모형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통적 리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편익인식과 비용인식이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 전통적(비판적) 정책 리터러시는 편익인식(비용인식)을 통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전통적(비판적) 정책 리터러시는 개인적 규범(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편익인식(비용인식)은 개인적 규범(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공동체의식은 개인적 규범(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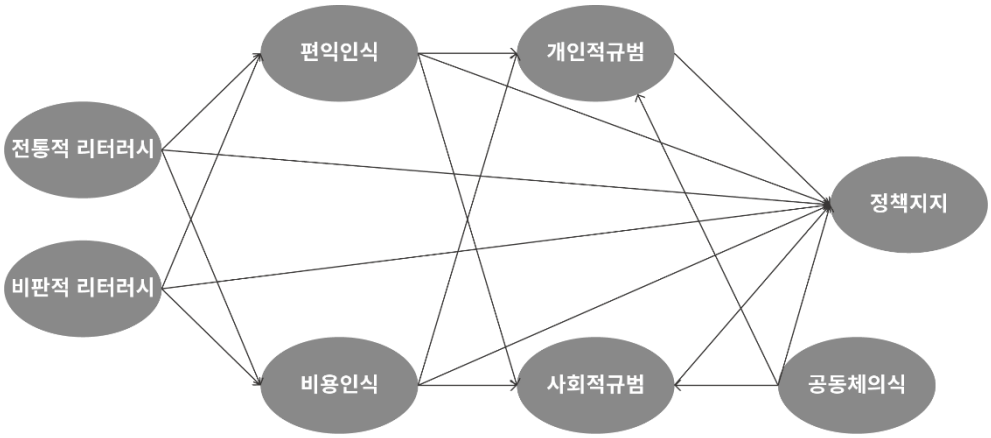
또한 정책지지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1: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편익인식과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이 차단단지 입주민보다 클 것이다. 비용인식의 영향력은 차단단지 입주민이 더 클 것이다.

H2-2: 비동질지역 입주민의 비용인식 영향력이 동질지역 입주민보다 클 것이다. 편익인식 영향력은 동질지역 입주민이 더 클 것이다.

H2-3: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입주민보다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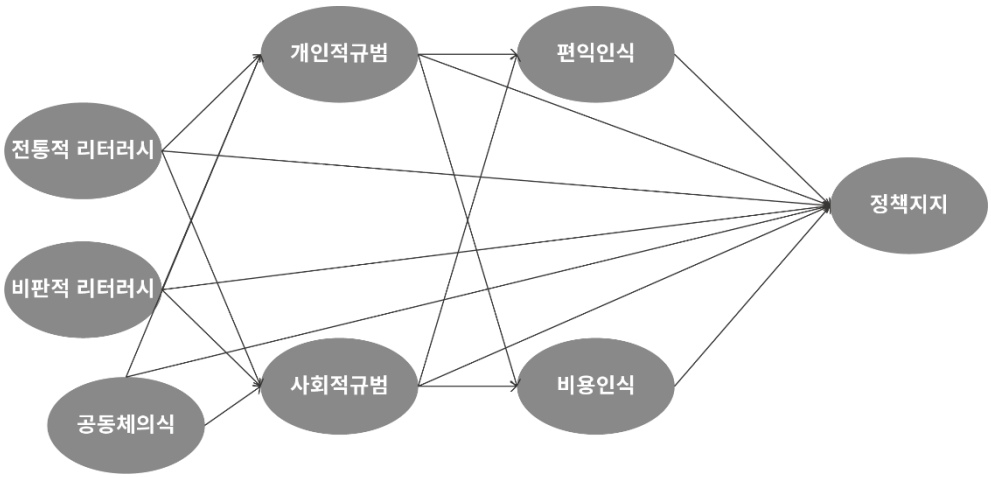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 리터러시 → 결과지각 → 규범 → 정책지지'를 기본 구조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전통적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 공동체의식을 외생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편익인식, 비용인식, 개인적규범, 사회적규범을 매개변수로, 정책지지를 최종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모형은 여러 개의 매개경로를 갖고 있는 다중매개모형이며, 비용인식 잠재변수는 억제요인으로, 편익인식,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잠재변수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연구모형 1(기준모형)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규범이 편익과 비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형을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정책 리터러시 → 규범 → 결과지각 → 정책지지'를 기본 구조로 하는 경쟁모형을 설계하였다. 기준모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 공동체의식을 외생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적규범, 사회적규범, 편익인식, 비용인식을 매개변수로, 정책지지를 최종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5] 연구모형 2(경쟁모형)

제 5 절 분석방법

1. PLS-SEM

구조방정식모형은 변수 간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이다. 회귀분석과 달리 여러 개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내생잠재변수들 간 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측정오차의 개념을 활용한다. 잠재변수는 직접 관찰되거나 측정되지 않고 측정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로,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로 나뉜다. 측정오차는 측정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가 어떤 측정변수들에 의해 정의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측정모델),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우종필, 2012).

2010 년 전까지는 관찰변수의 공분산에 기반한 구조방정식 모형(CB-SEM: Co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더 많이 이용되는 방법론이었지만, 최근 요인기반의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사회과학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PLS-SEM 은 CB-SEM 보다 상대적으로 표본크기나 잔차분포에 대한 요구사항이 덜 엄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복잡한 모형을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PLS-SEM 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자료를 처리하거나 표본수가 작을 때, 그리고 형성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와 반영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를 다룰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또한, 그룹비교와 조절변수 분석 등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Hair et al.,

2019; Henseler, 2018; Mehmetoglu & Venturini, 2021; 박승록, 2020; 윤철호·김상훈, 2014).

보통 이론적 틀을 검증하고자 할 때, 구조모델이 복잡하고 구성요소가 많을 때, 이론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일 때, 표본 수가 적을 때 PLS-SEM 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을 토대로 잠재변수를 재구성 및 재배치하여 정책지지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정책지지의 영향요인이 다양한만큼 잠재변수의 수가 많다. 연구모형의 잠재변수가 8 개이고, 그 중 매개변수가 4 개로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설문 응답이 비정규분포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PLS 구조방정식모형을 채택하였다.

PLS-SEM 은 '내부 및 외부모형의 설정 →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실증모형의 추정 → 추정결과의 평가 단계'를 거쳐 분석되지만(박승록, 2020),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별로 사용하는 기준값이 다르며, 평가 가이드라인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는 크게 외부모형 평가 기준과 내부모형 평가 기준으로 나뉜다. 외부모형 평가는 측정지표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평가로, 반영지표 모형과 조형지표모형의 평가가 분리되어 시행된다. 내부모형 평가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다(Hair et al., 2019; 윤철호·김상훈, 201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부모형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크론바흐 알파와 로 알파, 합성신뢰도 값은 통상적으로는 0.70 이상이면 수용되지만, 탐색적 연구는 0.6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 집중타당도를

평가하는 외부적재치(요인부하량) 적합성은 0.70 이상, 측정변수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AVE 값은 0.50 이상이면 수용된다. Fornell-Larcker criterion 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 잠재변수들 간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교차적재기준을 이용하여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들보다 높으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존 기법들이 판별타당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LS-SEM 을 위한 판별타당도 기법인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가 개발되었다. HTMT 값이 0.85 이하(가장 보수적인 기준)이거나 0.90 이하(중간 기준), 혹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할 경우 신뢰구간에 1 이 포함되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신건권, 2018: 190~218).

내부모형 평가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VIF 값이 5 보다 작으면(엄격하게는 3 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 R^2 는 모든 내생잠재변수에 대해서 산출되며, 내생잠재변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외생잠재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내생잠재변수의 분산 비율이다. 0.75 이상이면 설명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0.50 이면 중간 정도의 설명력을, 0.25 면 약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효과크기 f^2 는 0.35 이상이면 큰 것으로, 0.15 이면 중간인 것으로, 0.02 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측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Q^2 는 0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하여야 한다(신건권, 2018: 246~268).

[표 3-6] 반영지표모형 평가 기준

외부모형 평가		
평가기준		수용기준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0.70 이상 (탐색적 연구는 0.60 이상도 허용)
	로 알파	0.70 이상 (탐색적 연구는 0.60 이상도 수용)
	합성신뢰도(CR)	0.70 이상 (탐색적 연구는 0.60 이상도 수용)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적합성	0.70 이상
	측정변수 신뢰도	0.50 이상
	AVE	0.50 이상
판별타당도	Fornell-Larcker criterion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 잠재변수들 간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커야 함
	교차적재기준	AVE 의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들보다 높아야 함
	HTMT	$HTMT_{.85}$: 0.85 이하(가장 보수적인 기준) $HTMT_{.90}$: 0.90 이하(중간 기준) $HTMT_{\text{추론}}$: 신뢰구간에 1 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장 자유로운 기준)
내부모형 평가		
단계	평가기준	수용기준
1	다중공선성 VIF	5 미만
2	설명력 결정계수(R^2)	0.25: 약함 0.50: 중간 0.75: 강함
3	효과크기(f^2)	0.02: 작음 0.15: 중간 0.35: 큼
4	예측적 적합성(Q^2)	0 초과
5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유의수준 0.05

2. 다중집단분석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집단분석이 필요하다. 다중집단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간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기법이다 (우종필, 2012: 410).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집단별로 동일하게 '측정동일성'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동일성은 측정된 점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의 차이가 집단에 따른 차이와 구분되지 못하므로 집단 간 차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Kline, 2019). PLS-SEM 에서 측정동일성은 MICOM(measurement invariace of composite model) 세 단계를 통해 확보된다. 1 단계에서는 형태적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2 단계에서는 구성적 동일성(compositional invariance), 3 단계에서는 평균 및 분산 균등성(equal mean values and variances)을 확인한다.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pooled data 상태로 원칙적으로 단일 모집단으로 분석 가능하고, 2 단계까지만 충족하면 측정동일성을 부분적으로만 만족하여, 경로 간 표준화계수를 비교할 수 있다. 2 단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측정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할 수 없다(Henseler et al., 2016; Matthews, 2017).

1 단계 형태적 동일성은 동일한 측정문항, 동일한 데이터처리 방법, 동일한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확보할 수 있다. 2 단계 구성적 동일성은 순열 검정을 통해 모든 집단 합성변수의 점수 간 상관관계가 1 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면 확보할 수 있다. 3 단계 평균 및 분산의 균등성 또한 순열 검정을 시행하며, 평균 균등성은 집단 간 구성변수

점수의 평균 차이를, 분산 균등성은 구성변수 점수 비율의 대수값이 0 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면 확보된다(Cheah et al., 2020; Henseler et al., 2016; 이재열·황승준, 2017).

[표 3-7] PLS-SEM 측정동일성 단계(MICOM)

단계	평가기준	수용기준
1	형태적 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	동일한 측정문항, 동일한 데이터처리 방법, 동일한 모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확보 - 미확보 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할 수 없음
2	구성적 동일성 Compositional invariance	비모수적 방법인 순열 검정을 통해 검증 - 미확보 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할 수 없음.
3	평균 및 분산 균등성 Equal mean values and variances	순열 검정을 통해 검증 - 미확보 시 부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할 수 있음. - 확보 시 완전 특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단일모집단으로 분석 가능

제 4 장 단지개방정책 지지도 실증 분석

제 1 절 자료 사전분석

1. 자료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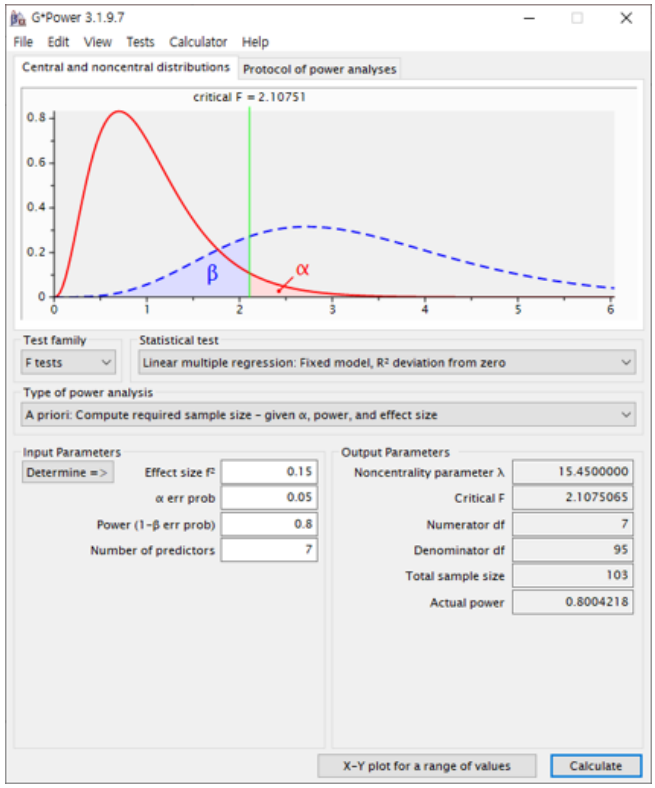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내 공원형 아파트 중 서초구 반포 1 동과 반포 3 동, 동작구 상도 2 동,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8 개의 아파트단지에 거주 중인 만 18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 참여자는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광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총 356 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지가 아닌 48 부를 제외한 유효부수는 308 부였다.

[표 4-1] 자료 수집 결과

구분	내용
설문 기간	2021 년 10 월 7 일 ~ 2021 년 11 월 19 일
설문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1 동, 반포 3 동, 동작구 상도 2 동, 마포구 용강동
설문 대상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민 중 만 18 세 이상 성인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유형	7 점 리커트 척도, 객관식 문항
설문 내용	정책 리터러시, 편익인식, 비용인식,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공동체의식, 응답자 기초정보
회수 부수	총 356 부 중 유효부수 308 부

PLS 구조방정식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0 배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0 배수 규칙이란, 가장 많은 경로가 걸려 있는 종속변수의 '독립변수로부터 걸려 있는 경로의 수 × 10'개를 최소 표본수로 설정하는 방법이다(Hair et al., 2019; Mehmetoglu & Venturini, 2021). 이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에 걸려 있는 경로의 수 7 개의

10 배인 70 개가 최소 표본 수이고, 유효부수 308 개는 이를 충족한다. 한편,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수를 설정하기도 한다(신건권, 2018). G*Power 를 이용하면 10 배수 규칙보다 보수적으로 최소 표본수를 설정할 수 있다. PLS-SEM 은 OLS 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분산을 최소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G*Power 프로그램의 다중회귀분석 최소 표본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최소 표본수를 계산하였다.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2=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그리고 정책지지에 걸려 있는 경로의 수 7 을 이용하여 계산한 최소 표본수는 103 이다. 수집된 유효부수 308 개는 이 최소 표본수 기준도 만족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1]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최소 표본수

2. 자료의 특성

최종 분석에 이용한 308 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아파트단지 B1, B2, B3(이상 반포 1 동)에 사는 사람이 각각 41 명(13.31%), 35 명(11.36%), 44명(14.29%)이었으며, B4(이상 반포3동)에 사는 사람이 31명(10.06%), S1, S2(이상 상도2동)에 사는 사람이 각각 52명(16.88%), 41명(13.31%), Y1, Y2(이상 용강동)에 사는 사람이 각각 32 명(10.39%), 32 명(10.39%)이었다.

설문 참여자 중 108 명(35.06%)이 남성, 200 명(64.94%)이 여성이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 대 이하 65 명(21.10%), 30 대 109 명(35.39%), 40 대 93 명(30.20%), 50 대 25 명(8.12%), 60 대 이상 16 명(5.19%)이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특성과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한 기간(해당 아파트단지 거주 이전 기간 포함)은 평균 96.90 개월(약 8 년)이었으며, 1 년 미만동안 거주한 사람이 20 명(6.49%), 1 년 이상 5 년 미만 거주한 사람이 151 명(49.03%), 5 년 이상 10 년 미만 거주한 사람이 51 명(16.56%), 10 년 이상 15 년 미만 거주한 사람이 40 명(12.98%), 15 년 이상 20 년 미만 거주한 사람이 9 명(2.93%), 20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37 명(12.01%)이었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101 명(32.79%)이 임차가구, 207 명(67.21%)이 자가가구로 자가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64 명(53.2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정주부 46 명(14.94%), 학생 45 명(14.61%), 자영업 23 명(7.47%), 비정규직 20 명(6.49%), 무직 8 명(2.60%) 순으로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월 1000 만원 이상이 88 명(28.57%)으로 가장 많았고, 8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 59 명(19.16%), 40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56 명(18.19%), 600 만원 이상 800 만원 미만 53 명(17.20%),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37 명(12.01%), 200 만원 미만 15 명(4.87%) 순이었다.

[표 4-2] 설문 참여자 특성

응답자 특성		빈도(명)	비율(%)
아파트단지	B1	41	13.31
	B2	35	11.36
	B3	44	14.29
	B4	31	10.06
	S1	52	16.88
	S2	41	13.31
	Y1	32	10.39
	Y2	32	10.39
성별	남성	108	35.06
	여성	200	64.94
연령대	20 대 이하	65	21.10
	30 대	109	35.39
	40 대	93	30.20
	50 대	25	8.12
	60 대 이상	16	5.19
거주기간	1 년 미만	20	6.49
	1 년 이상 5 년 미만	151	49.03
	5 년 이상 10 년 미만	51	16.56
	10 년 이상 15 년 미만	40	12.98
	15 년 이상 20 년 미만	9	2.93
	20 년 이상	37	12.01
거주유형	임차가구	101	32.79
	자가가구	207	67.21
고용형태	정규직	164	53.25
	비정규직	20	6.49
	자영업	23	7.47
	가정주부	46	14.94
	학생	45	14.61
	무직	8	2.60
	기타	2	0.65
가구월평균소득	200 만원 미만	15	4.87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37	12.01
	40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56	18.19
	600 만원 이상 800 만원 미만	53	17.20
	8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	59	19.16
	1000 만원 이상	88	28.57

3.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Stata16 과 SmartPLS 3.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각 영향요인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LS-SEM 을 시행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기초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 각 문항별 평균값이 4 를 초과하면 긍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비용 인식 문항은 질문의 특성 상 역으로 4 를 초과했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정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문항의 평균값은 2.96, 정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문항의 평균값은 3.87, 정책의 수단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의 평균값은 3.10 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의 평균값은 2.95, 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의 평균값은 2.83,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평균값은 2.82 이었다. 이는 아파트단지 개방과 관련된 정책의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책 존재 인지, 정책 내용 인지, 정책 수단 인지의 표준편차는 각각 1.98, 1.96, 2.00 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평균에서 실제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뜻하는 표준편차의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응답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존재·내용·수단에 대한 인지 정도가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의 평균값은 4.52, 도시 내 공공성 확대의 평균값은 4.77, 지역공동체 형성의 평균값은 4.33, 지역사회 발전의 평균값은 4.43 으로 모두 4 점을 초과하였다. 이는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개방 정책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내 공공성 확대, 지역공동체형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익인식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부정적인 항목도 있었다. 건설시 인센티브의 평균값은 4.79, 관리비 지원 등 대가의 평균값은 5.05, 이동편리성 증대의 평균값은 5.37, 생활 SOC 증가의 평균값은 4.64 로 긍정적이었지만, 지역공동체의식 강화의 평균값은 3.97, 단지분위기 증진은 3.90 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이 지역공동체의식 강화와 단지분위기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인식 항목은 분석 결과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사유재산 침해의 평균은 4.15, 유지보수비용 증가의 평균은 5.33, 사생활 침해의 평균은 4.57, 치안악화의 평균은 5.04, 위생악화의 평균은 5.45, 소음악화의 평균은 5.48 이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판단의 평균값은 3.91(표준편차 1.52)로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발생할 결과를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규범에 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파트단지 개방에 의무감을 느끼는 항목의 평균값은 3.31, 죄책감을 묻는 문항의 평균값은 3.87, 도리라고 여기는 평균값은 3.90 으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의 평균은 4.09 로 입주민이 아파트단지 개방을 도덕적으로 다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규범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주변의 의견, 주변의 기대, 사회적 압력의 평균값은 각각 4.12, 4.12, 4.07 로 4 점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바람 항목의 평균값은 3.87 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기고, 또한 자신이 아파트단지 개방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 상 아파트단지를 개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내'가 아파트단지 개방 행위에 참여할 것이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의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의식과 영향의식, 연대감, 소속감의 평균값이 각각 4.51, 5.11, 5.21, 4.72 로 4 점을 초과하였다. 즉 입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동네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정해진 생활규칙을 믿고 따르는 편이며, 이웃의 좋은 일에 공감하고, 동네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정책지지에 대한 인식도 모두 긍정적이었다. 필요성 동의의 평균값은 4.48, 수단 동의의 평균값은 4.93, 정책확대의 평균값은 4.59 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아파트단지를 개방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수단에 동의하고, 자신의 아파트단지에 정책이 시행된다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4-3] 문항별 기초통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통적 리터러시	존재 인지	308	2.96	1.98	1	7
	내용 인지	308	3.87	1.96	1	7
	수단 인지	308	3.10	2.00	1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08	2.95	1.76	1	7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308	2.83	1.79	1	7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308	2.82	1.77	1	7
비판적 리터러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308	4.52	1.54	1	7
	공공성 확대	308	4.77	1.54	1	7
	공동체 형성	308	4.33	1.60	1	7
	지역사회 발전	308	4.43	1.59	1	7
편익인식	인센티브 편익	308	4.79	1.58	1	7
	관리비 지원	308	5.05	1.63	1	7
	공동체의식 강화	308	3.97	1.88	1	7
	단지분위기 증진	308	3.90	1.86	1	7
	이동편리성 증대	308	5.37	1.62	1	7
	생활 SOC 증가	308	4.64	1.79	1	7
비용인식	사유재산 침해	308	4.15	1.63	1	7
	유지보수비용 증가	308	5.33	1.36	1	7
	사생활 침해	308	4.57	1.66	1	7
	치안악화	308	5.04	1.53	1	7
	위생악화	308	5.45	1.46	1	7
	소음악화	308	5.48	1.39	1	7
개인적 규범	의무감	308	3.31	1.64	1	7
	죄책감	308	3.87	1.74	1	7
	도덕성	308	4.09	1.66	1	7
	도리	308	3.90	1.73	1	7
사회적 규범	주변의 의견	308	4.12	1.57	1	7
	주변의 기대	308	4.12	1.62	1	7
	주변의 바람	308	3.87	1.60	1	7
	사회적 압력	308	4.07	1.74	1	7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308	4.51	1.33	1	7
	영향의식	308	5.11	1.23	1	7
	연대감	308	5.21	1.31	1	7
	소속감	308	4.72	1.37	1	7
정책지지	필요성 동의	308	4.40	1.81	1	7
	수단 동의	308	4.85	1.76	1	7
	준수의향	308	4.88	1.58	1	7

입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간추려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입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순서대로 3 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순위별로 상위 4 개의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입주민들이 1 순위로 원하는 인센티브는 관리비 지원,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증가 순이었고, 2 순위로 원하는 인센티브는 소요비용 지원, 관리비 지원,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였다. 3 순위로 원하는 인센티브는 관리비 지원, 취득세 감면, 소요비용 지원, 등록세 감면이었다.

이 결과는 입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원함을 보여준다. 관리비 지원과 소요비용 지원은 입주민이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거주비용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취득세 감면과 등록세 감면은 입주민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로 이 역시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용면적 증가 또한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 면적을 기준보다 넓게 하게 해주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완화는 공동주택 건설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된 인센티브 중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방안이다. 입주민들이 용적률 완화를 원한 것은 건폐율 완화나 동간간격 완화는 단지의 공원화된 외부공간이 축소될 수 있고, 동간간격이 좁아지면 주거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층수제한 완화나 높이제한 완화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능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이 건설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비용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원한 것은 건설 시 인센티브를 입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을 뿐더러, 연구대상지 특성 상 조성된지 얼마되지 않아 새로 재건축 혹은 재개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건설 시 인센티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 희망 인센티브 순위

1 순위	희망 인센티브	관리비 지원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증가
	빈도	107	49	36	36
2 순위	희망 인센티브	소요비용 지원	관리비 지원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빈도	60	54	41	24
3 순위	희망 인센티브	관리비 지원	취득세 감면	소요비용 지원	등록세 감면
	빈도	56	44	40	36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1 순위 개방시간 제한, 행위제한, 2 순위 행위 제한, 개방시간 제한, 3 순위 이용시설 제한, 개방시간 제한 순이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개방할 때 개방시간을 정해놓고 단지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한 후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한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입주민의 구체적인 바람으로는 반려견의 출입을 금하고 싶어했고, 산책로와 놀이터만 이용할 수 있게 하길 원했다. 또한 음주나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길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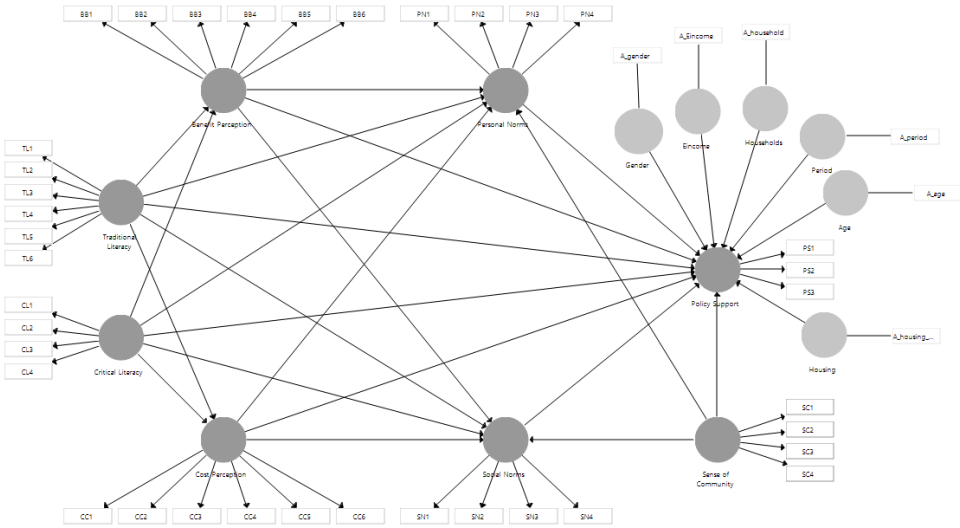
[표 4-5]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순위

1 순위	방안	개방시간 제한	행위 제한
	빈도	143	90
2 순위	방안	행위 제한	개방시간 제한
	빈도	123	91
3 순위	방안	이용시설 제한	개방시간 제한
	빈도	11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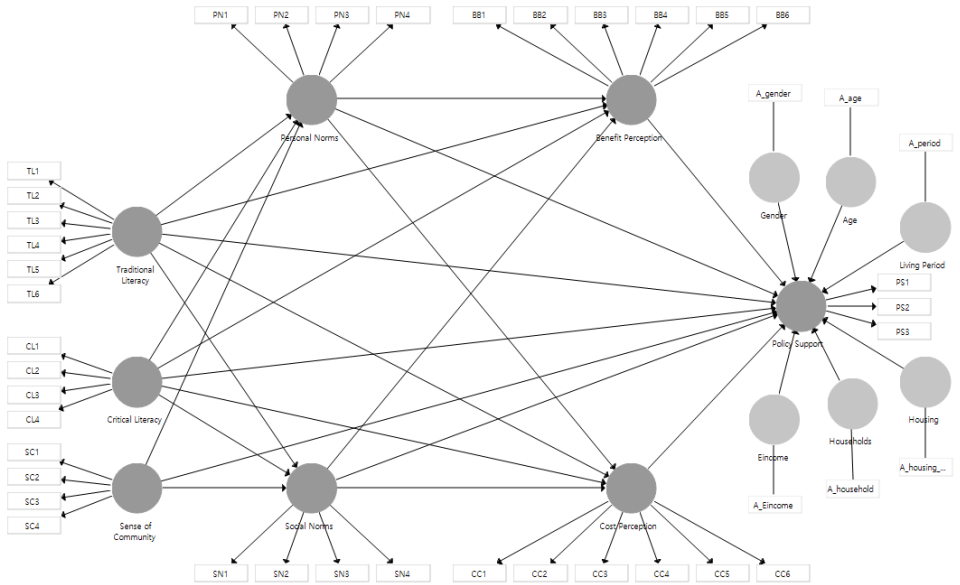
4. 신뢰도 검정

공분산 기반의 CB-SEM 과는 달리 PLS-SEM 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조모형을 바로 분석한다(De Souzabido & Da Silva, 2019).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타당성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별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고, 판별타당성 검증을 통해 잠재변수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PLS-SEM 을 통해 유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표본 내에서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부트스트랩의 특성 때문에 분석 결과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모형에 개인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개인특성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유형, 거주기간, 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과 거주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 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소득은 가구월평균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으로 변환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의 기준을 이용하여 모형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4-2] 분석모형 1(기준모형)



[그림 4-3] 분석모형 2(경쟁모형)

4.1. 분석모형 1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값이 모두 0.8 이상, 로 알파(ρ alpha) 값이 모두 0.8 이상, 합성신뢰도(CR) 값이 0.9 이상 0.95 이하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4-6] 분석모형 1 외부모형 평가: 신뢰도

변수	크론바흐 알파	로 알파	CR
전통적 리터러시	0.908	0.925	0.920
비판적 리터러시	0.917	0.921	0.942
편익 인식	0.867	0.877	0.901
비용 인식	0.909	0.917	0.929
개인적 규범	0.892	0.906	0.925
사회적 규범	0.922	0.928	0.944
공동체의식	0.847	0.859	0.897
정책지지	0.903	0.907	0.939
성별	1.000	1.000	1.000
연령	1.000	1.000	1.000
거주유형	1.000	1.000	1.000
거주기간	1.000	1.000	1.000
균등화소득	1.000	1.000	1.000

요인 부하량이 모두 0.6 이상(p-value 0.000),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모두 0.5 이상이었다. 측정변수 신뢰도는 외부 적재치의 제곱값으로 측정변수의 분산 중 해당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모형 1 에서 편익 인식의 이동편리성 증대(B5) 측정변수 신뢰도가 0.430 으로 0.5 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지만 탐색적 연구의 경우 허용 외부 적재치 수준이 0.6 이고, 측정변수 신뢰도를 외부 적재치의 제곱으로 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7] 분석모형1 외부모형 평가: 집중타당도

변수		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전통적 리터러시				
TL1	존재 인지	0.803***	0.645	
TL2	내용 인지	0.725***	0.526	
TL3	수단 인지	0.786***	0.618	0.672
TL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0.846***	0.716	
TL5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0.855***	0.731	
TL6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0.868***	0.754	
비판적 리터러시				
CL1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0.849***	0.720	
CL2	공공성 확대	0.913***	0.834	0.802
CL3	공동체 형성	0.900***	0.810	
CL4	지역사회 발전	0.918***	0.843	
편익 인식				
B1	인센티브 편익	0.790***	0.624	
B2	관리비 지원	0.767***	0.588	
B3	공동체의식 강화	0.836***	0.699	0.604
B4	단지분위기 증진	0.841***	0.707	
B5	이동편리성 증대	0.656***	0.430	
B6	생활 SOC 증가	0.757***	0.572	
비용 인식				
C1	사유재산 침해	0.809***	0.655	
C2	유지보수비용 증가	0.792***	0.628	
C3	사생활 침해	0.862***	0.743	0.688
C4	치안악화	0.840***	0.706	
C5	위생악화	0.859***	0.738	
C6	소음악화	0.809***	0.654	
개인적 규범				
PN1	의무감	0.799***	0.639	
PN2	죄책감	0.849***	0.720	0.757
PN3	도덕성	0.903***	0.815	
PN4	도리	0.923***	0.852	
사회적 규범				
SN1	주변의 의견	0.887***	0.787	
SN2	주변의 기대	0.916***	0.839	0.810
SN3	주변의 바람	0.921***	0.849	
SN4	사회적 압력	0.873***	0.763	
공동체의식				
SC1	참여의식	0.817***	0.668	
SC2	영향의식	0.801***	0.641	0.685
SC3	연대감	0.850***	0.723	
SC4	소속감	0.840***	0.706	
정책지지				
PS1	필요성 동의	0.935***	0.875	0.838
PS2	수단 동의	0.910***	0.829	
PS3	준수 의향	0.899***	0.809	
성별		1.000	1.000	1.000
연령		1.000	1.000	1.000
거주유형		1.000	1.000	1.000
거주기간		1.000	1.000	1.000
가구원수		1.000	1.000	1.000
균등화소득		1.000	1.000	1.000

*p<0.1, **p<0.05, ***p<0.01

판별타당도는 HTMT 로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HTMT 값이 0.85(가장 보수적인 기준) 혹은 0.90(중간 기준) 이하이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모형 1 의 HTMT 모든 값이 0.90 이하인 것을 통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8] 분석모형 1 외부모형 평가: 판별타당도(HTMT)

	TL	CL	BP	CP	PN	SN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TL														
CL	0.110													
BP	0.135	0.833												
CP	0.144	0.564	0.606											
PN	0.147	0.769	0.729	0.679										
SN	0.135	0.699	0.741	0.616	0.854									
SC	0.138	0.450	0.438	0.258	0.433	0.463								
PS	0.099	0.763	0.807	0.565	0.773	0.762	0.402							
성별	0.104	0.067	0.108	0.110	0.097	0.066	0.068	0.073						
연령	0.076	0.066	0.091	0.069	0.092	0.058	0.215	0.072	0.058					
거주 유형	0.068	0.246	0.238	0.227	0.275	0.292	0.101	0.239	0.123	0.082				
거주 기간	0.066	0.101	0.197	0.090	0.080	0.092	0.122	0.116	0.068	0.302	0.185			
가구원 수	0.103	0.084	0.070	0.081	0.063	0.069	0.059	0.097	0.050	0.094	0.053	0.120		
균등화 소득	0.068	0.083	0.120	0.145	0.098	0.108	0.072	0.093	0.086	0.057	0.170	0.068	0.145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분석모형 1 의 내부모형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VIF 값이 5 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4-9]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다중공선성

	TL	CL	BP	CP	PN	SN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BP	1.008	1.008												
CP	1.008	1.008												
PN	1.052	2.446	2.518	1.562										
SN	1.052	2.446	2.518	1.562										
SC					1.222	1.222								
PS	1.106	2.888	2.872	1.913	3.497	3.121	1.361		1.074	1.184	1.186	1.233	1.077	1.084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결정계수(R^2) 값은 대체로 0.5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만 비용인식의 결정계수 값이 0.299 로 약한 설명력의 기준인 0.25 보다는 높지만 다른 잠재변수들보다 설명력이 낮았다.

예측적 적합성(Q^2)은 Q^2 값이 0 보다 크면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분서모형 1 의 모든 내생재변수 Q^2 값이 0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내생잠재변수들에 대한 구조모델의 예측적 적합성을 지지한다.

[표 4-10]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설명력 및 예측적 적합성

내생잠재변수	R^2	Q^2
편익 인식	0.557	0.329
비용 인식	0.299	0.189
개인적 규범	0.617	0.452
사회적 규범	0.571	0.447
정책지지	0.647	0.516

효과크기(f^2) 분석 결과, 최종내생잠재변수인 정책지지의 R^2 에 비판적 리터러시, 편익인식,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이 다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잠재변수들은 거의 기여하고 있지 않았다. 개인적 규범의 R^2 에는 비판적 리터러시와 비용인식이 중간 정도 기여하였고, 전통적 리터러시와 편익인식, 공동체의식도 다소 기여하였다. 사회적 규범의 R^2 에는 전통적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 편익인식, 비용인식, 공동체의식 모두 다소 기여하였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편익인식과 비용인식의 R^2 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적 리터러시는 편익인식의 R^2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반면 비용인식의 R^2에는 전통적 리터러시가 다소 기여하였다.

[표 4-11] 분석모형 1 내부모형 평가: 효과크기

	TL	CL	BP	CP	PN	SN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BP	0.006	1.256												
CP	0.035	0.419												
PN	0.032	0.158	0.026	0.193			0.020							
SN	0.020	0.052	0.088	0.110			0.043							
PS	0.008	0.037	0.092	0.004	0.039	0.052	0.005		0.005	0.004	0.003	0.004	0.013	0.005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4.2.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값이 0.8 이상이고, 로 알파(ρ alpha) 값이 0.8 이상, 합성신뢰도(CR) 값이 0.8 이상 0.95 이하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4-12]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신뢰도

변수	크론바흐 알파	로 알파	CR
전통적 리터러시	0.908	0.928	0.921
비판적 리터러시	0.917	0.921	0.942
편익 인식	0.867	0.875	0.901
비용 인식	0.909	0.918	0.930
개인적 규범	0.892	0.906	0.925
사회적 규범	0.922	0.928	0.944
공동체의식	0.847	0.859	0.897
정책지지	0.903	0.907	0.939
성별	1.000	1.000	1.000
연령	1.000	1.000	1.000
거주유형	1.000	1.000	1.000
거주기간	1.000	1.000	1.000
균등화소득	1.000	1.000	1.000

요인 부하량이 모두 0.60 이상(p-value 0.000),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모두 0.5 이상이었다. 측정변수 신뢰도는 외부 적재치의 제곱값으로 측정변수의 분산 중 해당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모형 1 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익 인식의 이동편리성 증대(B5) 측정변수 신뢰도가 0.435 로 0.5 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지만 분석모형 1 과 같은 이유로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3]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집중타당도

변수		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전통적 리터러시				
TL1	존재 인지	0.803***	0.645	
TL2	내용 인지	0.727***	0.528	
TL3	수단 인지	0.786***	0.617	0.672
TL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0.847***	0.718	
TL5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0.857***	0.735	
TL6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0.869***	0.755	
비판적 리터러시				
CL1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0.849***	0.721	
CL2	공공성 확대	0.914***	0.834	0.802
CL3	공동체 형성	0.900***	0.809	
CL4	지역사회 발전	0.918***	0.843	
편익 인식				
B1	인센티브 편익	0.791***	0.626	
B2	관리비 지원	0.771***	0.594	
B3	공동체의식 강화	0.832***	0.693	0.604
B4	단지분위기 증진	0.837***	0.701	
B5	이동편리성 증대	0.660***	0.435	
B6	생활 SOC 증가	0.757***	0.573	
비용 인식				
C1	사유재산 침해	0.810***	0.657	
C2	유지보수비용 증가	0.792***	0.627	
C3	사생활 침해	0.863***	0.745	0.688
C4	치안악화	0.840***	0.706	
C5	위생악화	0.859***	0.738	
C6	소음악화	0.808***	0.653	
개인적 규범				
PN1	의무감	0.801***	0.642	
PN2	죄책감	0.848***	0.718	0.757
PN3	도덕성	0.902***	0.814	
PN4	도리	0.923***	0.852	
사회적 규범				
SN1	주변의 의견	0.887***	0.787	
SN2	주변의 기대	0.916***	0.839	0.810
SN3	주변의 바람	0.921***	0.848	
SN4	사회적 압력	0.874***	0.764	
공동체의식				
SC1	참여의식	0.818***	0.669	
SC2	영향의식	0.800***	0.641	0.686
SC3	연대감	0.851***	0.723	
SC4	소속감	0.841***	0.706	
정책지지				
PS1	필요성 동의	0.936***	0.875	0.838
PS2	수단 동의	0.910***	0.829	
PS3	준수 의향	0.899***	0.809	
성별		1.000	1.000	1.000
연령		1.000	1.000	1.000
거주유형		1.000	1.000	1.000
거주기간		1.000	1.000	1.000
가구원수		1.000	1.000	1.000
균등화소득		1.000	1.000	1.000

*p<0.1, **p<0.05, ***p<0.01

분석모형 2 의 HTMT 값도 모두 0.90 이하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4-14] 분석모형 2 외부모형 평가: 판별타당도(HTMT)

	TL	CL	PN	SN	BP	CP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TL														
CL	0.110													
PN	0.147	0.770												
SN	0.136	0.701	0.854											
BP	0.135	0.834	0.730	0.741										
CP	0.143	0.564	0.679	0.616	0.606									
SC	0.138	0.451	0.435	0.464	0.439	0.260								
PS	0.099	0.764	0.773	0.763	0.808	0.565	0.403							
성별	0.104	0.068	0.098	0.065	0.108	0.111	0.067	0.073						
연령	0.076	0.066	0.091	0.058	0.091	0.068	0.214	0.072	0.059					
거주 유형	0.068	0.246	0.275	0.293	0.240	0.228	0.102	0.240	0.123	0.080				
거주 기간	0.066	0.100	0.078	0.091	0.196	0.090	0.121	0.115	0.067	0.299	0.185			
가구원 수	0.102	0.084	0.063	0.070	0.069	0.081	0.059	0.097	0.050	0.092	0.052	0.123		
균등화 소득	0.068	0.084	0.100	0.109	0.120	0.146	0.072	0.094	0.086	0.057	0.170	0.067	0.146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분석모형 2 의 내부모형 또한 모든 VIF 값이 5 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4-15]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다중공선성

	TL	CL	PN	SN	BP	CP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PN	1.013	1.199												
SN	1.013	1.199												
BP	1.019	2.101	3.145	2.738										
CP	1.019	2.101	3.145	2.738										
SC			1.202	1.202										
PS	1.106	2.89	3.507	3.121	2.862	1.914	1.361		1.074	1.184	1.186	1.233	1.077	1.084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결정계수(R^2) 값을 살펴보면, 편익인식과 개인적 규범, 정책지지는 0.5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비용인식과 사회적 규범의 값이 각각 0.451, 0.459 로 다른 내생잠재변수에 비해 설명력이 낮았다.

또한 모든 내생재변수의 Q^2 값이 0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내생잠재변수들에 대한 구조모델의 예측적 적합성을 지지한다.

[표 4-16]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설명력 및 예측적 적합성

내생잠재변수	R^2	Q^2
편익 인식	0.621	0.365
비용 인식	0.451	0.292
개인적 규범	0.515	0.377
사회적 규범	0.459	0.356
정책지지	0.649	0.517

효과크기(f^2) 분석 결과, 정책지지의 R^2 에 비판적 리터러시,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편익인식이 다소 기여를 했으며 다른 잠재변수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편익인식의 R^2 에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중간 정도 기여했으며, 사회적 규범이 다소 기여했고, 전통적 리터러시와 개인적 규범은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반대로 비용인식의 R^2 에는 전통적 리터러시와 개인적 규범이 다소 기여했으며,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적 규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의 R^2 에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크게 기여했으며, 전통적 리터러시와 공동체의식은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분석모형 2 내부모형 평가: 효과크기

	TL	CL	PN	SN	BP	CP	SC	PS	성별	연령	거주 유형	거주 기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
PN	0.012	0.748					0.026							
SN	0.010	0.519					0.055							
BP	0.004	0.334	0.008	0.086										
CP	0.066	0.018	0.097	0.030										
PS	0.008	0.037	0.039	0.051	0.095	0.004	0.005		0.005	0.004	0.003	0.004	0.013	0.005

TL: 전통적 리터러시, CL: 비판적 리터러시, PN: 개인적 규범, SN: 사회적 규범
BP: 편익 인식, CP: 비용 인식, SC: 공동체의식, PS: 정책지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 1 과 분석모형 2 모두 신뢰도와 타당성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내부모형 평가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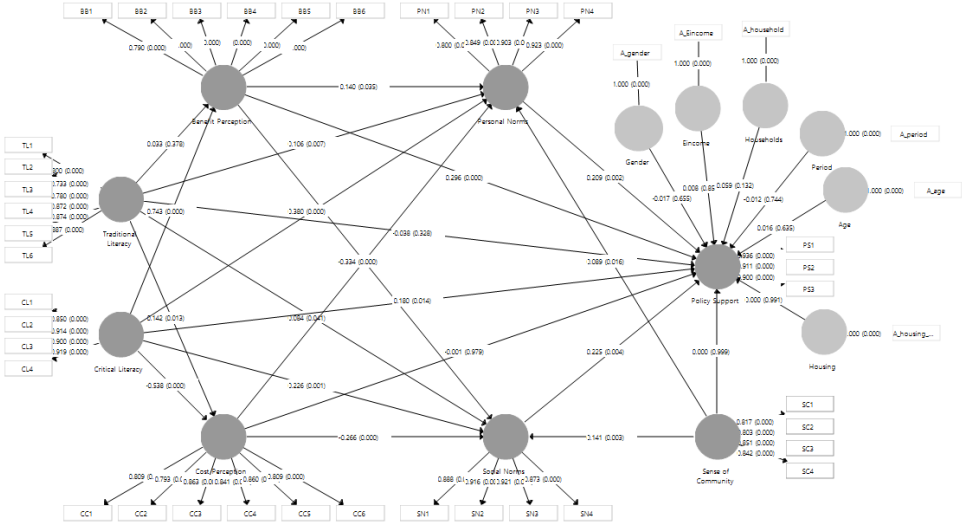
[표 4-18]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결과

외부모형 평가		
평가기준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신뢰도	만족	만족
타당도	만족	만족
내부모형 평가		
평가기준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다중공선성	만족	만족
설명력	만족	만족
효과크기	만족	만족
예측적 적합성	만족	만족

제 2 절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PLS-SEM)

1. 분석모형 1(기준모형)

최종 내생잠재변수인 정책지지에 비판적 리터러시, 편익인식,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지하고 있을수록, 단지개방의 긍정적 결과를 높게 평가할수록, 내면적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길수록,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여길수록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편익인식(0.298***) > 사회적 규범(0.225***) > 개인적 규범(0.205***) > 비판적 리터러시(0.177**) 순이었다. 반면 전통적 리터러시와 비용인식, 공동체의식, 개인특성변수들은 정책지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림 4-4] 분석모형 1 추정 결과

[표 4-19] 분석모형 1 의 PLS-SEM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T value	P value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38	0.959	0.338
← 비판적 리터러시	0.177**	2.461	0.014
← 편익인식	0.298***	4.313	0.000
← 비용인식	-0.003	0.027	0.979
← 개인적 규범	0.205***	2.856	0.004
← 사회적 규범	0.225***	2.768	0.006
← 공동체의식	0.003	0.001	0.999
← 성별	-0.017	0.439	0.661
← 연령	0.016	0.472	0.637
← 거주유형	0.001	0.011	0.991
← 거주기간	-0.012	0.319	0.750
← 가구원수	0.058	1.498	0.134
← 균등화소득	0.010	0.188	0.851
개인적 규범			
← 전통적 리터러시	0.107***	2.690	0.007
← 비판적 리터러시	0.377***	5.983	0.000
← 편익인식	0.142**	2.094	0.036
← 비용인식	-0.335***	6.737	0.000
← 공동체의식	0.089**	2.383	0.017
사회적 규범			
← 전통적 리터러시	0.085**	2.077	0.038
← 비판적 리터러시	0.223***	3.242	0.001
← 편익인식	0.299***	4.356	0.000
← 비용인식	-0.266***	5.907	0.000
← 공동체의식	0.141***	2.905	0.004
편익인식			
← 전통적 리터러시	0.034	0.869	0.385
← 비판적 리터러시	0.743***	27.552	0.000
비용인식			
← 전통적 리터러시	0.144**	2.434	0.015
← 비판적 리터러시	-0.538***	12.798	0.000

*p<0.1, **p<0.05, ***p<0.01

그러나 간접효과를 포함한 정책지지로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정책지지에 미치는 요인이 달라졌다. 직접적으로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비용인식 요인이 간접효과를 통해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용인식은 정책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입주민이 단지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을 의미한다.

총효과 크기는 비판적 리터러시(0.670***) > 편익인식(0.394***) > 사회적 규범(0.225***) > 개인적 규범(0.205***) > 비용인식(-0.131***) 순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로계수(직접효과)에 간접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지지의 영향요인들 중 비판적 리터러시와 편익인식, 비용인식,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비판적 리터러시를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크지 않지만 간접효과의 크기가 0.492***로 다른 변수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총효과와 직접효과에서는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의식이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했는데, 공동체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리터러시는 비용인식과 개인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유의수준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때 비용인식을 거치게 되면,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책지지에 작지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0] 분석모형 1의 정책지지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03	-0.038	0.035
← 비판적 리터러시	0.670***	0.177**	0.492***
← 편익인식	0.394***	0.298***	0.096***
← 비용인식	-0.131***	-0.003	-0.129***
← 개인적 규범	0.205***	0.205***	
← 사회적 규범	0.225***	0.225***	
← 공동체의식	0.052	0.003	0.049***
← 성별	-0.017	-0.017	
← 연령	0.016	0.016	
← 거주유형	0.001	0.001	
← 거주기간	-0.012	-0.012	
← 가구원수	0.058	0.058	
← 균등화소득	0.010	0.010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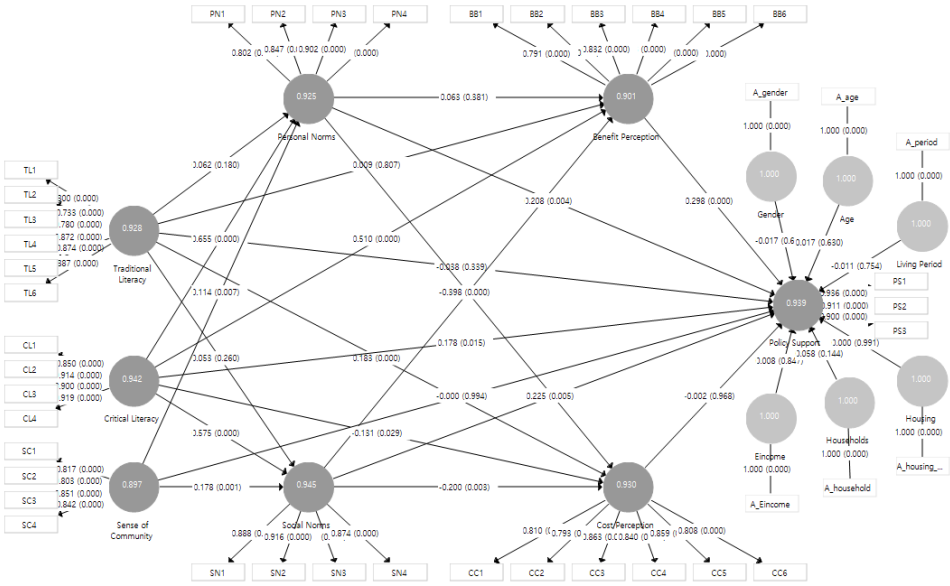
[표 4-21] 분석모형 1의 주요 경로의 간접효과

경로	간접 효과
전통적 리터러시 → 비용인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10*
전통적 리터러시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22*
비판적 리터러시 → 편익인식 → 정책지지	0.222***
비판적 리터러시 → 편익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50**
비판적 리터러시 → 비용인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37**
비판적 리터러시 → 비용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32**
비판적 리터러시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77***
비판적 리터러시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51*
편익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67**
비용인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69**
비용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60**
공동체의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18*
공동체의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31**

*p<0.1, **p<0.05, ***p<0.01

2. 분석모형 2(경쟁모형)

분석모형 2 의 PLS-SEM 분석 결과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리터러시와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편익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내면적으로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길수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수록, 단지개방의 긍정적인 결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긍정적이었다. 직접효과의 영향력은 편익인식(0.302***) > 사회적 규범(0.224***) > 개인적 규범(0.206***) > 비판적 리터러시(0.175**) 순이었다. 전통적 리터러시와 공동체의식, 비용인식, 개인특성변수들은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림 4-5]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표 4-22] 분석모형 2 의 PLS-SEM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T value	P value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37	0.952	0.341
← 비판적 리터러시	0.175**	2.423	0.015
← 개인적 규범	0.206***	2.903	0.004
← 사회적 규범	0.224***	2.879	0.004
← 공동체의식	0.002	0.008	0.994
← 편익인식	0.302***	4.252	0.000
← 비용인식	-0.004	0.041	0.968
← 성별	-0.018	0.451	0.652
← 연령	0.016	0.483	0.629
← 거주유형	0.001	0.012	0.990
← 거주기간	-0.011	0.307	0.759
← 가구원수	0.058	1.510	0.131
← 균등화소득	0.009	0.188	0.851
편익인식			
← 전통적 리터러시	0.010	0.245	0.807
← 비판적 리터러시	0.511***	10.191	0.000
← 개인적 규범	0.066	0.896	0.370
← 사회적 규범	0.288***	4.442	0.000
비용인식			
← 전통적 리터러시	0.185***	3.761	0.000
← 비판적 리터러시	-0.131**	2.204	0.028
← 개인적 규범	-0.397***	4.926	0.000
← 사회적 규범	-0.202***	3.019	0.003
개인적 규범			
← 전통적 리터러시	0.061	1.348	0.178
← 비판적 리터러시	0.654***	17.721	0.000
← 공동체의식	0.116***	2.669	0.008
사회적 규범			
← 전통적 리터러시	0.053	1.096	0.273
← 비판적 리터러시	0.575***	12.321	0.000
← 공동체의식	0.180***	3.225	0.001

*p<0.1, **p<0.05, ***p<0.01

그러나 분석모형 1 과 마찬가지로 정책지지로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정책지지로의 영향력 차이가 달라진다. 분석모형 2 의 총효과는 비판적 리터러시(0.658***) > 사회적 규범(0.312***) > 편익인식(0.302***) > 개인적 규범(0.22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경로계수(직접효과)에 간접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비판적 리터러시를 살펴보면, 직접효과 0.175**로 다른 잠재변수에 비해 작지만 간접효과의 크기가 0.483***로 다른 변수에 비해 커 총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지지의 영향요인들 중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적 규범,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중 공동체의식은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규범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편익인식을 통해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이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높게 판단하여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표 4-23] 분석모형 2의 정책지지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04	-0.037	0.033
← 비판적 리터러시	0.658***	0.175**	0.483***
← 개인적 규범	0.228***	0.206***	0.022
← 사회적 규범	0.312***	0.224***	0.088***
← 공동체의식	0.084	0.002	0.082***
← 편익인식	0.302***	0.302***	
← 비용인식	-0.004	-0.004	
← 성별	-0.018	-0.018	
← 연령	0.016	0.016	
← 거주유형	0.001	0.001	
← 거주기간	-0.011	-0.011	
← 가구원수	0.058	0.058	
← 균등화소득	0.009	0.009	

*p<0.1, **p<0.05, ***p<0.01

[표 4-24] 분석모형 2의 주요 경로의 간접효과

경로	간접 효과
비판적 리터러시 → 편익인식 → 정책지지	0.155***
비판적 리터러시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134***
비판적 리터러시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129***
비판적 리터러시 → 사회적 규범 → 편익인식 → 정책지지	0.050***
사회적 규범 → 편익인식 → 정책지지	0.087***
공동체의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0.024*
공동체의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0.039**
공동체의식 → 사회적 규범 → 편익인식 → 정책지지	0.016**

*p<0.1, **p<0.05, ***p<0.01

3. 모형 선택

PLS-SEM 에서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BIC 값이나 GM 값을 이용하여 더 낮은 값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Sharma et al., 2019; Sharma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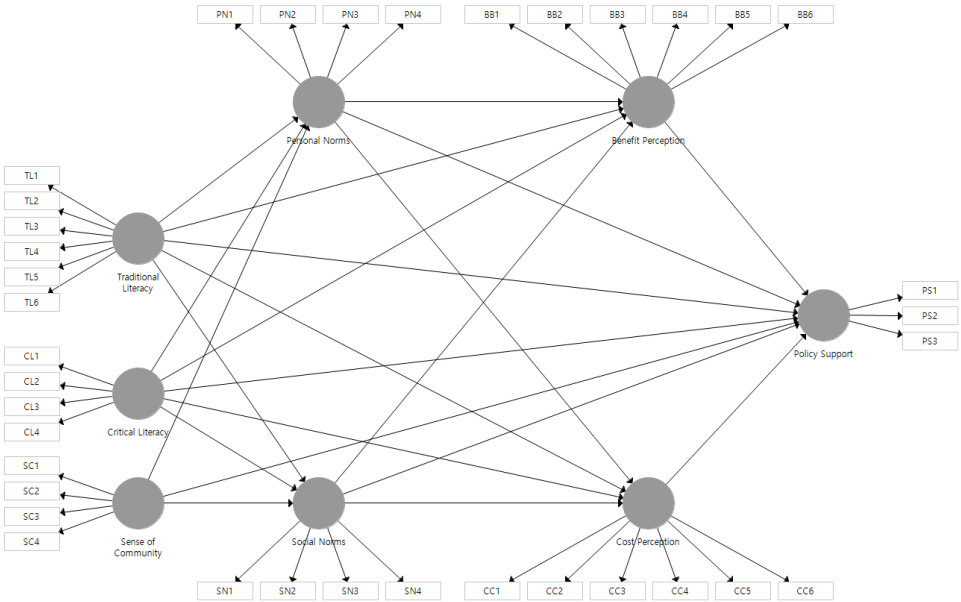
분석모형 1 과 분석모형 2 의 BIC 값은 각각 -239.586, -240.049 로 분석모형 2(경쟁모형)의 값이 더 낮았다. 이를 통해 근소한 차이지만 분석모형 2 가 더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결과에 대한 지각이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이 정책 결과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즉 아파트단지 개방에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5] 분석모형 선정 기준: BIC 값 비교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BIC	-239.586	-240.049

제 3 절 집단 간 차이 분석

집단 간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지지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더 적합한 분석모형 2(경쟁모형)를 이용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개인특성변수를 삭제한 후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그림 4-6] 다중집단분석모형

단지차단문의 설치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이미 단지차단문을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단지개방정책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인식 구조와 단지차단문을 설치하지 않은 단지 입주민의 인식 구조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이 단지개방을 방해하는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파트단지를 일종의 사적 오아시스처럼 조성하면서 아파트단지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주변 지역과 단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지차단문의 설치는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주변과 자신의 단지를 극명하게 구분하는 방법이다. 즉 지역 내에서 주민 간 수준이 동질적이지 않을수록 더 구별짓고자 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오아시스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질적인 지역과 비동질적인 지역의 입주민 인식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수치보다 입주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 측정동일성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든 문항에 같은 점수를 매긴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1 단계인 형태적 동일성은 모든 집단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6] PLS-SEM 측정동일성 1 단계 형태적 동일성 분석 결과

분류		동일한 측정 문항	동일한 데이터처리 방법	동일한 모델 알고리즘
1	차단단지 / 비차단단지	충족	충족	충족
2	동질지역 / 비동질지역	충족	충족	충족
3	동질인식 / 비동질인식	충족	충족	충족

2단계인 구성적 동일성은 순열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00회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구성적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PLS-SEM 측정동일성 2단계 구성동일성 분석 결과

분류 1 차단단지 vs 비차단단지				
변수	c value	5% quantile	P Value	충족 여부
TL	0.987	0.911	0.507	Y
CL	1.000	1.000	0.196	Y
PN	0.999	0.999	0.113	Y
SN	1.000	0.999	0.257	Y
SC	1.000	0.992	0.975	Y
BP	0.998	0.998	0.151	Y
CP	1.000	0.999	0.918	Y
PS	1.000	1.000	0.884	Y
분류 2 동질지역 vs 비동질지역				
변수	c value	5% quantile	P Value	충족 여부
TL	0.958	0.906	0.129	Y
CL	1.000	1.000	0.290	Y
PN	1.000	0.999	0.359	Y
SN	1.000	1.000	0.223	Y
SC	0.995	0.992	0.195	Y
BP	0.999	0.998	0.341	Y
CP	0.999	0.999	0.273	Y
PS	1.000	1.000	0.266	Y
분류 3 동질인식 vs 비동질인식				
변수	c value	5% quantile	P Value	충족 여부
TL	0.955	0.902	0.128	Y
CL	1.000	0.999	0.922	Y
PN	1.000	0.999	0.415	Y
SN	1.000	0.999	0.198	Y
SC	0.998	0.990	0.530	Y
BP	0.999	0.997	0.443	Y
CP	0.999	0.998	0.490	Y
PS	1.000	1.000	0.072	Y

3 단계 평균 및 분산 균등성 또한 순열 검정(5000 회)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3 단계의 평균 균등성은 분류 1, 분류 2 의 집단은 충족하였으나 분류 3 의 집단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산 균등성은 모든 집단이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4-28] PLS-SEM 측정동일성 3 단계 평균 균등성 분석 결과

분류 1 차단단지 vs 비차단단지				
변수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071	-0.227	0.226	Y
CL	-0.049	-0.229	0.229	Y
PN	-0.084	-0.227	0.223	Y
SN	0.048	-0.228	0.224	Y
SC	0.083	-0.228	0.226	Y
BP	-0.118	-0.227	0.227	Y
CP	0.053	-0.226	0.229	Y
PS	-0.103	-0.231	0.227	Y
분류 2 동질지역 vs 비동질지역				
변수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214	-0.228	0.220	Y
CL	-0.067	-0.221	0.217	Y
PN	-0.054	-0.222	0.226	Y
SN	-0.146	-0.218	0.226	Y
SC	-0.213	-0.217	0.220	Y
BP	-0.186	-0.225	0.214	Y
CP	0.221	-0.219	0.225	Y
PS	-0.147	-0.218	0.213	Y
분류 3 동질인식 vs 비동질인식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265	-0.231	0.237	N
CL	-0.309	-0.235	0.228	N
PN	-0.335	-0.236	0.226	N
SN	-0.301	-0.238	0.228	N
SC	-0.661	-0.231	0.221	N
BP	-0.377	-0.230	0.231	N
CP	0.108	-0.232	0.235	Y
PS	-0.406	-0.232	0.228	N

[표 4-29] PLS-SEM 측정동일성 3단계 분산 균등성 분석 결과

분류 1 차단단지 vs 비차단단지				
변수	분산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066	-0.250	0.239	Y
CL	0.069	-0.336	0.326	Y
PN	-0.019	-0.268	0.276	Y
SN	0.009	-0.277	0.271	Y
SC	-0.103	-0.368	0.365	Y
BP	0.336	-0.295	0.282	N
CP	0.144	-0.351	0.346	Y
PS	0.004	-0.296	0.291	Y
분류 2 동질지역 vs 비동질지역				
변수	분산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072	-0.252	0.246	Y
CL	-0.176	-0.332	0.336	Y
PN	-0.154	-0.268	0.265	Y
SN	-0.179	-0.269	0.275	Y
SC	-0.059	-0.364	0.371	Y
BP	0.160	-0.292	0.293	Y
CP	-0.349	-0.330	0.348	N
PS	-0.064	-0.296	0.296	Y
분류 3 동질인식 vs 비동질인식				
변수	분산 차이	신뢰구간(95%)		충족 여부
TL	-0.479	-0.266	0.244	N
CL	0.066	-0.355	0.326	Y
PN	-0.265	-0.287	0.257	Y
SN	-0.183	-0.297	0.272	Y
SC	0.123	-0.402	0.363	Y
BP	0.041	-0.315	0.299	Y
CP	0.037	-0.371	0.324	Y
PS	0.075	-0.319	0.284	Y

종합해보면, 모든 집단이 2 단계 구성적 동일성까지 만족하여 측정동일성을 부분적으로 만족하였기에 분류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30] PLS-SEM 측정동일성 충족 여부

분류		형태적 동일성	구성적 동일성	평균 균등성	분산 균등성
1	차단단지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비차단단지				
2	동질지역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비동질지역				
3	동질인식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비동질인식				

1. 차단단지 vs 비차단단지

차단단지는 아파트단지 경계에 외부인의 보행을 차단하는 보행차단문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를, 비차단단지는 보행차단문이 없는 단지를 의미한다. 308 개의 유효 표본 중 차단단지 139 개, 비차단단지 169 개였다.

다중집단분석에 앞서 두 집단의 정책지지도를 평균검정 t-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t-test 를 실시하기 전 우선 등분산성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차단단지와 비차단단지 표본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t-test 결과, 비차단단지의 정책지지도가 차단단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1] 차단단지 입주민과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차단단지			비차단단지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139	-0.052	0.934	169	0.043	0.931
평균 차이	t 값	자유도	p 값	신뢰구간	
-0.095	-0.8919	306	0.373	-0.305	0.115

차단단지 입주민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효과의 영향으로 정책지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규범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했으며, 공동체의식은 간접효과의 영향으로 정책지지에 영향을 주었다. 편익인식과 비용인식은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표 4-32] 차단단지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56	0.027	0.029
← 비판적 리터러시	0.686***	0.115	0.570***
← 개인적 규범	0.131	0.044	0.088
← 사회적 규범	0.427***	0.266***	0.161***
← 공동체의식	0.121*	0.029	0.091**
← 편익인식	0.394***	0.394***	
← 비용인식	-0.133*	-0.133*	

*p<0.1, **p<0.05, ***p<0.01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했다. 개인적 규범과 편익인식은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공동체의식은 간접효과만 유의했다.

[표 4-33] 비차단단지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39	-0.090	0.051
← 비판적 리터러시	0.655***	0.251**	0.403***
← 개인적 규범	0.312***	0.330***	-0.018
← 사회적 규범	0.204	0.171	0.032
← 공동체의식	0.047	-0.038	0.085**
← 편익인식	0.221**	0.221**	
← 비용인식	0.098	0.098	

*p<0.1, **p<0.05, ***p<0.01

차단단지 입주민과 비차단단지 입주민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효과 차이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비교를 통해 각 경로의 분류유형에 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 결과, 개인적 규범이

정책지지로 향하는 경로와 비용인식이 정책지지로 향하는 경로에서 직접효과(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차단단지 입주민은 비차단단지 입주민보다 개인적 규범의 영향력은 약하고, 비용인식의 영향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단지의 차단문 설치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차단단지는 이미 아파트단지 개방에 대해 입주민이 동의를 받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으로, 비용인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개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차단단지는 개인적 규범의 영향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의 차단을 부정적으로 여겨 차단문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표 4-34] 분류 1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차단단지-비차단단지)

경로	총효과 차이	직접효과 차이	간접효과 차이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95	0.117	-0.022
← 비판적 리터러시	0.036	-0.144	0.180*
← 개인적 규범	-0.182	-0.292**	0.110*
← 사회적 규범	0.229	0.099	0.130**
← 공동체의식	0.071	0.068	0.003
← 편익인식	0.184	0.184	
← 비용인식	-0.234**	-0.234**	

*p<0.1, **p<0.05, ***p<0.01

2. 동질지역 vs 비동질지역

아파트단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질지역과 비동질지역으로 나누어 지지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동질지역(서초구 반포 1 동, 반포 3 동) 151 개, 비동질지역(동작구 상도 2 동, 마포구 용강동) 157 개 표본을 이용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성이 낮으면 동질적인 지역으로, 다양성이 높으면 동질적이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등분산성 검정 결과, 동질적인 지역의 입주민과 동질적이지 않은 지역의 입주민 간 등분산성이 성립하여 t-test 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질적인 지역의 입주민이 비동질적인 지역에 사는 입주민보다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비동질지역 입주민과 동질지역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비동질지역			동질지역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157	-0.067	0.913	151	0.070	0.949
평균 차이	t 값	자유도	p 값	신뢰구간	
-0.137	-1.295	306	0.197	-0.346	0.071

비동질지역 입주민의 정책지지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정책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개인적 규범, 편익인식이었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서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규범과 공동체의식은 간접효과만 존재하였는데 그 영향력이 작아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비동질지역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30	-0.012	0.041
← 비판적 리터러시	0.621***	0.165	0.456***
← 개인적 규범	0.340***	0.280**	0.060
← 사회적 규범	0.184	0.104	0.080*
← 공동체의식	0.044	-0.029	0.073*
← 편익인식	0.314***	0.314***	
← 비용인식	-0.015	-0.015	

*p<0.1, **p<0.05, ***p<0.01

동질지역 입주민의 정책지지에는 비판적 리터러시와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편익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적 규범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 규범은 직접효과만 유의했으나 그 영향으로 총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공동체의식은 간접효과의 영향으로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37] 동질지역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35	-0.042	0.007
← 비판적 리터러시	0.689***	0.206**	0.482***
← 개인적 규범	0.148*	0.154*	-0.007
← 사회적 규범	0.388***	0.303***	0.086**
← 공동체의식	0.128**	0.030	0.098***
← 편익인식	0.275**	0.275**	
← 비용인식	0.004	0.004	

*p<0.1, **p<0.05, ***p<0.01

그러나 비동질지역 입주민과 동질지역 입주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곧 각 경로에서의 분류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4-38] 분류2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비동질지역-동질지역)

경로	총효과 차이	직접효과 차이	간접효과 차이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59	0.025	0.034
← 비판적 리터러시	-0.070	-0.049	-0.020
← 개인적 규범	0.192	0.125	0.067
← 사회적 규범	-0.204	-0.198	-0.006
← 공동체의식	-0.084	-0.059	-0.025
← 편익인식	0.047	0.047	
← 비용인식	-0.018	-0.018	

*p<0.1, **p<0.05, ***p<0.01

3. 동질인식 vs 비동질인식

입주민이 자신의 동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동네로 인식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지지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196 명과 그렇지 않은 112 명을 대상으로 등분산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등분산성이 확보되어 t-test 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의 정책 지지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를 시행한 결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39] 비동질인식 입주민과 동질인식 입주민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비동질인식			동질인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112	-0.230	0.931	196	0.131	0.909
평균 차이	t 값	자유도	p 값	신뢰구간	
-0.361	-3.327	306	0.001	-0.575	0.148

동네를 동질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입주민의 정책지지에는 편익인식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으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규범은 간접효과는 유의했으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40] 비동질인식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09	-0.004	0.013
← 비판적 리터러시	0.584***	0.078	0.506***
← 개인적 규범	0.247	0.214	0.033
← 사회적 규범	0.273	0.151	0.121**
← 공동체의식	-0.056	-0.093	0.038
← 편익인식	0.381***	0.381***	
← 비용인식	-0.038	-0.038	

*p<0.1, **p<0.05, ***p<0.01

반면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의 정책지지에는 비판적 리터러시,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편익인식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적 규범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있었으며, 공동체의식은 간접효과의 영향력으로 총효과까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41] 동질인식 입주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24	-0.058	0.034
← 비판적 리터러시	0.699***	0.291***	0.407***
← 개인적 규범	0.194**	0.171**	0.023
← 사회적 규범	0.308***	0.252***	0.057*
← 공동체의식	0.163***	0.071	0.093***
← 편익인식	0.193**	0.193**	
← 비용인식	-0.011	-0.011	

*p<0.1, **p<0.05, ***p<0.01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총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이 그렇지 않은 입주민보다 공동체의식이 정책지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할수록 주변 입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42] 분류 3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이(비동질인식-동질인식)

경로	총효과 차이	직접효과 차이	간접효과 차이
정책지지			
← 전통적 리터러시	0.087	0.082	0.005
← 비판적 리터러시	-0.120	-0.224	0.105
← 개인적 규범	0.045	0.041	0.004
← 사회적 규범	-0.027	-0.095	0.068
← 공동체의식	-0.229**	-0.172	-0.057
← 편익인식	0.190	0.190	
← 비용인식	-0.032	-0.032	

*p<0.1, **p<0.05, ***p<0.01

제 4 절 소결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편익 및 비용인식이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에 선행하는 분석모형 1 보다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이 편익 및 비용인식에 선행하는 분석모형 2 가 더 적합한 모형이었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편익(혹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아파트단지 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수록 아파트단지 개방의 긍정적인 영향은 높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모형 2 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통적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책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정책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전통적 리터러시가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정책 특성 상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아 개인이 그 정책을 직접 접하기 힘들고,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범과 정책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모두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주민이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수록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주민이 단지개방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지개방 정책을 규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의 경로계수와 총효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입주민이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나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단지개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편익 및 비용인식과 정책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편익인식은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용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책지지도 높아지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결과 중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은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규범이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책지지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동체의식이 개인적 규범보다 사회적 규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집단분석 결과, 비차단단지에 사는 입주민이 차단단지에 사는 입주민에 비해 개인적 규범의 영향력은 크고, 비용인식의 영향력은 작았다. 이 결과는 차단단지 입주민에게는 비용인식을 완화할 요소를, 비차단단지 입주민에게는 개인적 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동네를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력이 더 컸다. 공동체의식의 직접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총효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주민이 동네를 얼마나 동질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정책지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지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동네를 이질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H2-3* 은 채택되었고, *H1-1, 1-2, 1-4, 2-1* 은 부분 채택, *H1-3, 2-2* 는 기각되었다.

[표 4-43] 가설채택 여부

가설	경로	채택여부
H1-1	전통적 리터러시 → 편익인식 → 정책지지	기각
	전통적 리터러시 → 비용인식 → 정책지지	기각
	비판적 리터러시 → 편익인식 → 정책지지	채택
	비판적 리터러시 → 비용인식 → 정책지지	기각
H1-2	전통적 리터러시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전통적 리터러시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비판적 리터러시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채택
	비판적 리터러시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채택
H1-3	편익인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편익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비용인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비용인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H1-4	공동체의식 → 개인적 규범 → 정책지지	기각
	공동체의식 → 사회적 규범 → 정책지지	채택
H2-1	개인적 규범의 영향력: 비차단단지 > 차단단지	채택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 비차단단지 > 차단단지	기각
	편익인식의 영향력: 비차단단지 > 차단단지	기각
	비용인식의 영향력: 차단단지 > 비차단단지	채택
H2-2	편익인식의 영향력: 동질지역 > 비동질지역	기각
	비용인식의 영향력: 비동질지역 > 동질지역	기각
H2-3	공동체의식의 영향력: 동질인식 > 비동질 인식	채택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와 집단 별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파트단지 입주민이 정책의 목표를 알고, 정책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정책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입주민의 정책지지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잃을 수 있는 손해보다 중요했다. 이는 사람들의 선택에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이론과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정책수용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홍보하여야 한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나 개방정책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을 입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단단지 입주민이 비차단단지 입주민보다 잃을 수 있는 손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미 차단되어 있는 단지는 단지를 개방함으로써 잃을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단지개방에 관한 입주민 개인의 내면적 감정보다 주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나 감정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지개방정책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개방과 관련된 갈등을 공론화하고, 단지개방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공동체의식에 따라 단지개방에 관한 내면적 감정이나 주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정되고,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단지개방 정책지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입주민이 지역주민의 수준을 본인 수준과 비슷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구분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이질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주변 지역과의 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공동체는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논쟁을 해소하는 데 다양한 함의를 주기에(김대건, 2011), 아파트단지 차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는 방법으로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공간(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을 참고할만 하다. 특히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입주민이 원하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인 개방시간 제한, 행위 제한, 이용시설 제한은 개방된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이 POPS 처럼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OPS 는 일정 인센티브를 수용하고 사적으로 소유한

대지를 소유주가 관리하면서 공공에게 개방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파트단지 개방과 유사한 점이 있다. POPS 는 기본적으로 24 시간 운영되지만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일과시간에만 개방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 87 조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에 POPS 처럼 개방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드물다.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 검토 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지지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모든 요인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이전의 경험을 이유로 응답한 참여자들이 많았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리터러시, 규범, 결과지각 외에도 정부신뢰, 정책 PR 등 정책지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연구모형에 추가하지 못했다. 또 연구대상지로 이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단지 입주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 리터러시와 사회교환이론, 규범활성화 이론, 전망이론, 정책수용모형, 이성적 행동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리터러시와 결과지각, 규범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가 결과지각과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의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강성우. (2014). *아파트 조경공간의 도시공원· 녹지적 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성우. (2018). *도시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체계 및 제도 구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형미·이유나. (2018). 국가안보 PR 활동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22, 24-52.

고은정·안건혁. (2014). 사회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1-15.

고은정·이경환·안건혁. (2006).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의 변화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흥 3 동 담장허물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7*(4), 77-86.

고혜영·김주경. (2020).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 97-117.

곽윤정. (2012). 고층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이용행태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4), 1872-1879.

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 (TPB) 과 규범활성화 모형 (NAM) 의 통합 적용. *한국언론학보, 64*(3), 47-76.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201-228.

김대건. (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9*(1), 67-93.

김대현·박창석·박춘석·주신하·신지훈·변재상. (2005). 연대별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변화와 주민인식비교-대전광역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3*(3), 31-42.

김봉철·최명일·김유미. (2012). TV 자선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인지적 관여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행위통제, 도덕적 규범, 이타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0*(3), 48-88.

김수인·신택수. (2016).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초한 대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예측모형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187-211.

김수진·김영욱. (2019).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중심 분석. *한국언론학보, 63*(4), 230-274.

김수진·차희원. (2016). 비만의 책임귀인 메시지와 감정이 정책지지와 건강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귀인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2), 369-398.

김예성·김현·고진수. (2014). 도시녹지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이용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5), 31-40.

김재근·권기헌. (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173-200.

김재학·김성조. (2018).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 편익-비용, 전반적 만족도, 지지의사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연구저널, 32*(7), 65-79.

김재휘·박유진. (2002). 환경적 가치지향과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9-34.

김종흠. (2015).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친환경 유기농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격민감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6*(3), 519-539.

김종흠·박은아. (2015). 친환경 행동의도 및 친환경 소비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규범과 동기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6*(1), 1-22.

김지은·최막중. (2012).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5), 103-111.

김철수·정병두·이원수. (2007).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주거만족도 분석. *국토연구, 53,* 277-294.

김현준·이일용. (2013). 교육정책 정보제공이 교원의 이해를 매개하여 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31,* 91-115.

김희석·이영성. (2020). 서울의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역연구, 36*(1), 3-16.

노기영·박동진·권명순. (2013).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이용의도: 계획행동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7*(4), 168-191.

류동균·박경심·김태훈·주영환. (2016). 국립공원 탐방객의 개인적 규범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와 국립공원관리정책 지지도 차이분석. *관광연구저널, 30*(1), 197-210.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박정훈. (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 93-122.

박정훈·신정희. (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사공영호. (2008). 정책이란 무엇인가?-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한국정책학회보*, 17(4), 1-36.

서민정. (2019). 사회적 규범과 지각된 혜택이 사회적 기업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43*(5), 699-710.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 개 동 주민자치센처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손호중. (2007). 행정 PR 행태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97-126.

신경준. (2010).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창열·송학준·이충기. (2012). 축제품질, 축제주제 인식, 지각된 가치, 만족도 간 구조관계 연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사례로. *관광연구, 25*(6), 205-225.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양승호. (2014).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희진. (2017). *한국 아파트 단지화· 대형화의 경제논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경수·천명재·김희경. (2013). 정책 PR 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190-202.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4), 1-20.

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해외안전여행정책에 대한 정책 PR, 공중관계성,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연구논총*, *28*(3), 33-54.

오정학·윤유식. (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 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관광개발 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4*(5), 275-295.

윤철호·김상훈. (2014). R 을 이용한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튜토리얼: 예시 연구모형 및 데이터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16*(3), 89-112.

이경영·조영현·정문기. (2018).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4), 93-121.

이경환. (2009). 근린의 보행 환경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 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7), 203-210.

이동기. (2021). 공간정보정책에 있어 정책 리터러시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5*(1), 35-57.

이라영·신남수. (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223-234.

이미홍·조영태. (2008).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규제 지역별 주민의 제도 인식 차이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2), 123-143.

이상록. (2012).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277-302.

이수범·김남이. (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이시철. (2005). 규제순응의 동기 요인 및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9*(4), 347-369.

이연택·김태형·오은비. (2019). 지역축제정책의 정책 PR 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정책관여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6), 117-134.

이연택·김형준. (2014). 관광경찰제도에 대한 정책 PR, 정책이해, 정책지지 간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경영연구, 18*(2), 189-212.

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23-52.

이영원. (2016).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19*(1), 389-415.

이재열·황승준. (2017). PLS-MGA 방법론을 활용한 제도론적 관점에서의 공공제도 품질과 사용자 행태의 분석.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0*(2), 78-91.

이재호. (2001). *아파트단지 주거동 배치형태에 따른 녹지공간의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기·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1), 215-253.

이정아·전진형. (2008). 친환경 아파트 거주자의 옥외환경에 관한 인식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5*(6), 1-13.

이형숙·안준석·전승훈. (2011). 도시 노인들의 걷기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2), 65-72.

임다희·이소담·권기헌. (2016).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245-282.

장동현·박수빈. (2013). 아파트 거주자의 옥외공간사용, 이웃관계, 커뮤니티의식의 상호관계에 대한 계량적 검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12), 123-130.

장재영. (2007).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국토계획, 42*(5), 145-160.

전영상. (2011). 대규모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인식의 구조 분석: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선도지구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4), 167-198.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 73-104.

주현정·이연택. (2015).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 PR 이 정책효능성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7*(4), 51-71.

차동필. (2005). 폭음행위 이해: 계획행동 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보, 49*(3), 346-372.

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최병구. (2018).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에 대한 통합적 분석: 태도, 개인규범, 습관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3*(3), 85-109.

최연태·박상인. (201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73-98.

한수정·정예은·정문기. (2019). 공동체의식이 온라인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2), 3-18.

단행본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pp. 11-39)*. Springer.

Blakely, E. J., & Snyder, M. G. (1997).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ook, K. S., Cheshire, C., Rice, E. R., & Nakagawa, S. (2013). *Social exchange theory.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61-88)*. Springer.

Kline, R. B. (2019).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이현숙·장승민·신혜숙·김수진·전경희, 공역). (주)학지사. (원본 출판 2015)

Matthews, L. (2017). Applying multigroup analysis in PLS-SEM: A step-by-step process. In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pp. 219-243). Springer.

Mehmetoglu, M., & Venturini, S. (2021).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partial least squares using Stata and R*. CRC Press.

Nasar, J. L. (1998). *The Evaluative Image of the City*. Sage Publications.

박승록. (2020). *Stata 를 이용한 응용계량경제학*. (주)박영사.

박인석. (2013). *아파트 한국사회*. (주)현암사.

배병렬. (2018). *SPSS/Amos/LISREL/SmartPLS 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청람.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해외문헌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Atkinson, R., & Flint, J. (2004). Fortress UK? Gated communities, the spatial revolt of the elites and time–space trajectories of segregation. *Housing studies, 19*(6), 875-892.

Bint-e-Waheed, H., & Nadeem, O. (2020). Perception of security risk in gated and non-gated communities in Lahore, Pakista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5*(3), 897-915.

Cheah, J.-H., Thurasamy, R., Memon, M. A., Chuah, F., & Ting, H. (2020). Multigroup analysis using SmartPLS: step-by-step guidelines for business research. *Asia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ume, 10*(3).

Cialdini, R. B., Reno, R. R., & Kallgren, C. A. (199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15-1026.

De Groot, J. I., & Steg, L. (2009). Mor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norm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4), 425-449.

De Souzabido, D., & Da Silva, D. (2019). SMARTPLS 3: SPECIFICATION, ESTIMATION, EVALUATION AND REPORTING. *Administração: Ensino e Pesquisa–RAEP, 20*(2), 465-514.

Dogan, O., Han, J., & Lee, S. (2021). Opening Gated Communities and Neighborhood Accessibility Benefits: The Case of Seoul,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8), 4255.

Doran, R., & Larsen, S. (2016). The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 and personal norms in explaining intentions to choose eco-friendly travel o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2), 159-166.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9), 789-818.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31*(1), 2-24.

Henseler, J. (2018).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Quo vadis? *Quality & Quantity, 52*(1), 1-8.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6).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33*(3), 405-431.

Jackson, L. A. (2008).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impacts of special event tourism.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1*(3), 240-255.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363-391.

MacQueen, K. M., McLellan, E., Metzger, D. S., Kegeles, S., Strauss, R. P., Scotti, R., Blanchard, L., & Trotter, R. T. (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1929-1938.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Norman, P. (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sessing the impact of habit strength. *Addictive behaviors, 36*(5), 502-507.

Park, E., & Lee, J.-W. (2015). A study on policy literacy and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novationfocusing on Government 3.0 in South Korea.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1*(2), 23.

Park, J., & Ha, S. (2014). Understanding consumer recycling behavior: Comb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norm activation model.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2*(3), 278-291.

Sharma, P., Sarstedt, M., Shmueli, G., Kim, K. H., & Thiele, K. O. (2019). PLS-based model selection: The role of alternative explanation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4), 4.

Sharma, P. N., Shmueli, G., Sarstedt, M., Danks, N., & Ray, S. (2021). Prediction-oriented model selection in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Decision Sciences, 52*(3), 567-607.

Song, Z., Xing, L., & Chathoth, P. K. (2015). The effects of festival impacts on support intentions based on residents' ratings of festiv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 new integrative approach.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2), 316-337.

Wu, Z., Yang, L., Xu, K., Zhang, J., & Antwi-Afari, M. F. (2021). Key Factors of Opening Gated Community in Urban Area: A Case Study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3401.

Yang, H. J., & Kim, Y.-j. (2021). The role of territorial collective goods in Korea's residential development. *Land Use Policy,* 105789.

Yang, S., Tan, W., & Yan, L. (2021). Evaluating accessibility benefits of opening gated communities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in China: A case study of Shanghai. *Sustainability, 13*(2), 598.

부록(설문문항)

연구과제명: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 정책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나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 박인권(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설 시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익이다. *건설 시 인센티브: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높이제한 완화, 전용면적 증가, 분양가 가산 등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지원 등의 대가를 받으면 이익이다. *대가: 관리비·시설설치비·시설유지비 일정 비율 지원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	동네주민과 같이 이용하면,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식: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	단지 내에 더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	다른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를 이용하면 이동이 더 편리해진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6	다른 아파트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이 증가한다. *생활 SOC 시설: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원시설 등)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7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동네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유재산 침해이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9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0	사생활이 침해 당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1	단지 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2	단지 내 위생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3	단지 내 소음공해에 영향을 미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4	동네주민이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 된 외부공간을 이용할 때, 입주민이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순서대로 3개 선택해주십시오.						
	개방시간 제한	행위제한	이용시설 제한	이용자 제한	체류시간 제한	기타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입주민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그 정책이 우리 아파트단지에 시행된다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6	그 정책은 필요하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7	인센티브나 대가를 지불하는 정책의 수단에 동의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8	공원화 된 외부공간을 입주민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대가로 받고 싶은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순서대로 3개 선택해주십시오.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층수제한 완화	높이제한 완화	동간간격 완화	전용면적 증가	분양가 가산
	관리비 지원	소요비용 지원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기타		
동네주민이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의무감을 느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0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지 못하여 쫓겨나거나 불편을 겪는다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1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2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5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동네주민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6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동네주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할 것 같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동네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7	입주민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28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는 방법에 입주민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의 울타리 미설치, 놀이터 개방,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29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층수제한 완화, 높이제한 완화, 동간간격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 조의 2 내용을 알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 조의 2 는, 입주민에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외부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비영리로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31	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다. *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에는 담장 대신 나무를 심거나 주변과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런 경계표시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공동주택은 추가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32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다.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은, 단지 내 공공보행로 설치, 놀이터 외부 개방, 담장 허물기,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용면적 증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다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된 외부공간을 입주민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동네주민이 이용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	그 정책은 동네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4	그 정책은 도시 내 공공성 확대에 도움을 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5	그 정책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6	그 정책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와 이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물리적 범주를 선택해주십시오.						
	1. 단지 내 같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집	2. 단지 내 같은 동 (예: 101동)	3. 같은 아파트단지	4. 같은 행정동 (예: 신림동)	5. 같은 구 (예: 관악구)	6. 서울특별시	7. 우리나라 (대한민국)
38	우리동네 주민을 생각했을 때, 나(또는 우리 가족)의 생활수준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9	우리동네 주민을 생각했을 때, 나(또는 우리 가족)의 교육수준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0	나는 우리동네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1	나는 우리동네에서 새로운 생활규칙을 정하면 믿고 따른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2	우리동네와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3	나는 우리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응답자 특성							
44	귀하의 법적 성별을 선택해주십시오.						
	남	여					
45	귀하의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십시오.						
	년						

46	현재 살고 계신 동네(행정동)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년		개월				
47	귀하의 현재 거주 유형을 선택해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 월세	공공임대주택 전세	민간임대주택 월세	민간임대주택 전세 (반전세 포함)	자가(조합원)	자가 (일반분양)	자가(매매)
	기타						
48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구원은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기타
49	현재 귀하의 고용상태를 선택해주십시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50	현재 귀하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선택해주십시오.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800 만원 미만	800~900 만원 미만	900~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51	사례 지급 추첨에 참여하시려면 휴대폰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Abstract

Structur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influencing factors of the residents' policy support for opening their apartment complex in Seoul

- Exploratory study with PLS-SEM -

Kim, Na Hyun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Major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licy to open apartment complexes is one of the measures to ease the separ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secure publicity in the city. To open apartment complexes, residents' consent is essential since the apartment complex is private land.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residents' perceptions related to policie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upport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a survey.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support, this study designed a research model based on related theories such as social exchange theory, prospect theory, normative activation model, and rational behavior theory, focusing on policy literacy, moral and subjective norms, perception of benefits or costs, and sense of community.

The PLS-SEM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measurement variables, and 308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raditional policy literac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olicy support.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grasp the contents one by one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y. Critical policy literacy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policy support. So recognizing that policy helps achieve goals is necessary to increase policy support.

Second, the perception of benefits had a direct effect on policy support. But the perception of costs did not. The higher the positive results of the opening of apartment complexes, the higher the policy support. Therefore to revitalize the apartment complex opening policy,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sitive results of the complex opening.

Third, both moral and subjective norms influenced policy support. This means that the more residents perceive opening as a moral value and think that people around them will also think so, the higher the policy support. Therefore to establish a policy successfully, opening-friendly public opinion should be formed.

Fourth, the sense of community indirectly influenced policy support.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the more people around them think of opening as value, and so do people around them.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cannot be omitted without directly affecting policy support.

The main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omparing residents of the gated complex and residents of the un-gated complex, residents of un-gated complexes were more likely to regard the opening of apartment complexes as something that should be done. And residents who live in gated complexes were more sensitive to the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how residents perceived their neighborhood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Residents who thought homogeneously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than those who did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publicize how policy can achieve the goal so that residents can judge that the policy will help achieve goals.

In addition, to increase policy suppor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esidents' perception of benefits by promoting positive results of the policy. Providing more benefits can be one way. And promoting benefits such as incentives currently provided is also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by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For example, residents in gated complexes, which are sensitive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could be suggested a way to weaken or offset it.

Not all factor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For example, although previous experiences may affect current policy support, they could not be added. In addition, complexes with potential for reconstruction(redevelopment) and remodeling were exclud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search site.

Nevertheless,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imultaneously examined the effects of literacy, perception of results, norms, and sense of community with various theories related to policy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implementing policies.

Keywords : Opening Policy, Policy literacy, Moral and subjective norms, Perception of benefits and costs, Sense of community, PLS-SEM

Student Number : 2020-23711